

창조주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성별도 바뀌어 버리는 이 패악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6월 20일 (토) 제 1782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

NYT, 트럼프행정부 보건 분야 트랜스젠더 권리보장법안 철회 보도

트럼프 행정부가 보건 분야에서 트랜스젠더(성전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철회를 확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수적인 백인 크리스천들의 지지를 받고 백악관에 입성한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전 오바마 행정부가 펼쳐낸 낙태, 동성애 그리고 트랜스젠더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하나 둘씩 해제시켜 나가고 있다. 2018년부터 성전환자의 강화된 인권, 취업, 그리고 보건영역에서의 접근성을 축소시켜 나가고 있었

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학교, 직장, 군대에서와 같은 성전환자들을 위한 오바마 시대의 보호를 철회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제는 바로 성별의 정의다. 미 보건복지부는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정체성, 즉 착상되고 나서 태어날 때 갖게 되는 정체성에 따라 보건 분야에 접근할 수 있다는 과거 정의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U.S. Health Agency Reverses Obamacare Transgender Protections).

보건복지부(DHHS)는 12일, 보도 자료를 내고 "1557조항 시행에 있어 태생부터 결정되는, 남성이거나 여성 같은 평범한 성별에 따라서만 정부가 성차별을 해석하는 것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1557조항은 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개혁안인 '오바마케어(ACA)에 포함된 반(反)차별 규정이다. 정부의 재원이 들어가는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성별, 나이,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오바마 정부는 이 '성별'의 개념에 '성적 정체성'을 포함해 의료인이나 보훈사가 트랜스젠더 환자들에게도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설명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트랜스젠더를 향한 차별을 금지하고 혐오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 시행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트랜스젠더들은 성을 스스로 정의할 수 있으며 본인들이 불리기를 원하는 인정대명사로 불릴 권리를 갖고 이를 무시하는 행위를 할 시 위법'이라는 것.

그러나 트럼프 정부가 앞으로는 성적 정체성이 아닌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트랜스젠더의 의료 접근성



이 대폭 제한될 전망이다. 이 조항은 지난 수년간 법적 소송에 휘말리며 논란의 대상이 됐다.

보수주의자들은 오바마 정부 결정이 허용된 법적 권한을 넘어서며 반대해왔다.

보수기독교단체인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한 관계자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존 법 아래에서는 의료진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거나 환자에게 해가 된다고 생각해도 성별을 재결정하는 수술을 해야만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결정은 남성, 여성, 그 어느 쪽도 아닌 무성, 양쪽이 다 혼합된 성 등

개인의 내적 인식에 따른 결정을 폭넓게 이해하려 한 오바마 시대의 규정을 다시 쓰려는 것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지난 2016년 뉴욕시의 인권법은 개인이 선택한 성 정체성을 존중하지 않으면 위법에 해당했다. 그리고 고의로 트랜스젠더가 선호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욕시민들은 무려 31개의 성 정체성 항목 중 자신이 원하는 성별을 선택할 수 있다. 성 정체성 리스트를 보면 '젠더 퀴어(gender queer)', '범성애자(pangender)', '제3의 성(third sex)', '젠더 플루이드(gender fluid)' 등이 포함됐다.

젠더 퀴어는 "성 정체성이 남녀가 아닌 그 사이이거나 또는 몇 가지 성별이 결합된 사람",

젠더 플루이드는 "성 정체성이 사회의 성별에 따른 기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전환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러나 성별의 정의를 '출생 시 결정되며 바뀌지 않는 조건'으로 축소해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해 반발이 일고 있다. 사실상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법적 권리를 축소하는 법안이라는 것. 사실상, 성을 전환한 트랜스젠더의 성별은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트랜스젠더와 일부 옹호자들은 해당법안에 대해 "매우 공격적이고 고려할 가치가 없으며 위험한 조치"라고 항의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인구의 0.7%에 해당하는 트랜스젠더의 관용과 평등에 대한 열망을 좌절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트랜스젠더의 권리를 축소하는 행보를 이어왔다. 지난 2018년 3월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허용했던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고 이후 공립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자신이 선택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 조항을 폐지했다. (3면으로 계속)



모바일 건강코드, 주민감시 수단 NYT, 중국 코로나19 확산방지 모바일 앱 설치 강요 보도

중국 공산당 정권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구실로 각종 모바일 앱 설치를 강요하고 있다. 이들 앱은 유행병이 끝나더라도 삭제되지 않고 남아 자동화된 사회 통제 확대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고발한다(China's Virus Apps May Outlast the Outbreak, Stirring Privacy Fears: With the disease there mostly under control, officials are looking for new uses for the government software that's now on many phones).

알리페이는 중국의 거대 전자 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소유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이고 위챗은 다목적 메신저 앱이다. 이 두 앱은 모든 중국인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중국의 공식 건강 코드 서비스가 이 앱들에서 구동되며 사람들에게 3가지 색깔의 코드를 부여한다. 빨간색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4일의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노란색은 7일, 녹색은 격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바이러는 중국의 거대 전자 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소유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이고 위챗은 다목적 메신저 앱이다. 이 두 앱은 모든 중국인이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중국의 공식 건강 코드 서비스가 이 앱들에서 구동되며 사람들에게 3가지 색깔의 코드를 부여한다. 빨간색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14일의 격리기간을 거쳐야 한다. 노란색은 7일, 녹색은 격리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바이러스 확인 앱들은 코로 (3면으로 계속)



발행인 칼럼 김성국 목사



2면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정기태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su.edu | (213) 669-9009 | 65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말,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cbook.org / cbc@1919.org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경공부 전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발행인 칼럼

아버님의 낡은 노트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나는 장로님이셨던 아버님으로부터 유산을 제대로 받았다. 하나는 무형의 유산이고 다른 하나는 유형의 유산이다. 물론 아버님께서 두 가지 유산을 남기시면서 "이것이 네게 주는 유산"이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래도 그 유산 때문에 나는 부요하게 산다. 무형의 유산은 "복음 전파"라는 유언이었다. "복음 전파"라는 유산은 나로 좌고우면(左顧右盼) 하지 않게 해주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목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단 한마디로 일깨워주신 유산이었다. 이 유산은 결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거룩한 유산이었다.

다른 유산은 유형의 유산인데 다른 아닌 아버님의 낡은 노트이다. 간혹 아버님의 낡은 노트를 펴보면 아버님이 남기신 체취를 진하게 느낄 수 있다. 그 노트는 아버님이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받아 적어 놓으신 노트이다. 노트 위쪽에는 설교자, 설교본문, 설교제목, 설교날짜가 가지런히 적혀있고 매 설교는 대략 노트 한 페이지 남짓 분량으로 한자와 한글을 섞어 요약해 놓으셨다. 설교를 받아 적으신 것이라 아버님의 생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아버님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시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다. 그 아버님의 낡은 설교 노트는 다시 읽을 때마다 나를 부요케 해준다.

아버님의 낡은 노트 한 페이지에는 이렇게 설교를 받아 적어 놓으셨다.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노트에 있는 표현과 맞춤법 그대로이다.

72. 3/3 이성현 목사 신앙의 바른 자세 本文 "눅 18:6-8 "信仰問題 祈禱問題는 別個의 문제 같으나 믿음이 식으면 기도가 끊어지고 마는 것이다. 信仰과 기도는 병행 되어야 한다. 未世의 信仰 상태는 위태롭이 많은 기록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가기 때문에 罪가 되는 것이다. 1. 信仰은 熱心하나가 問題가 아니라 信仰이 진실하나이다. 2. 내가 좋으나 뉘냐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얼마나 의지 하나냐가 문제이다. 3.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알아주느냐가 문제이나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주느냐가 문제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生活. 4. 환경이 얼마나 리로우나 홀로우나 問題가 아니라 利害를 타지 않는 것이 信仰이다...인자가 올 때 信仰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탄식을 품고 전하신, 저명한 목회자요 부흥 감사이셨던 목사님의 설교를 적어 놓으신 것이다.

아버님의 낡은 노트에 보니 그 당시 목사님들이 외치셨던 말씀들은 50년 가까이 지난 오늘에도 매우 적절한 주제요 내용들을 담고 있음을 알게 된다. 아버님이 예배 때 말씀을 사모하며 적어 놓으신 설교 노트가 훗날 목사 아들들에게 그토록 큰 감동을 자아낼 줄은 아버님도 모르셨으리라. 나도 아버님의 낡은 노트가 나의 오늘을 살피고 나의 미래를 밝힐 빛도 된다는 사실에 놀랐다.

아버지는 자녀의 미래임이 분명하다. 또 다시 맞는 "아버지 날(Father's Day)"이다.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신 아버님을 생각해 본다. 무형의 "복음 전파"와 유형의 "낡은 노트"라는 유산들로 인해 나는 부요하다. 그런데 나는 무엇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아버지가 될까. 아버님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오늘의 나의 걸음이 내 아들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전국에서 벼을 아버님이 너무 그림다. 아버님이 계시면 감사하며 엮어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과 멋진 웃도 사드렸을 날이다.

나는 지금 나의 자녀들이 먼 훗날 그리워할 아버지로 살고 있는 것일까.

장기간 학교폐쇄...아이들이 달라진다

BBC, 코로나19 '성취 격차, 불평등 팽창으로 부정적 영향받는 아이들' 진단

현재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성장하면, 그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그들진 '잃어버린 세대'로 보게 되지는 않을까?(How Covid-19 is changing the world's children?)

학교 폐쇄는 코로나19 관련 조치 중 어린 세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논란이 된 조치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지금까지 교육에 지장을 받은 학생은 190개국에서 약 16억 명에 달한다. 전 세계 학교 아이들의 90%에 해당하는 숫자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들 중 절반은 언제 학교가 문을 열지 확실치 않지 않는 상태다.

학교를 닫는 것은 바이러스 확산 억제에서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할까? 이를 두고 많은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보고된 지 5개월여. 감염과 이에 대한 조치의 효과를 설명하는 자료들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팅엄대학 공중보건 역학과의 리처드 아미티지 교수는 "학교 폐쇄가 가진 과학적 효과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것이 조기 개학의 명분이 돼서는 안된다"며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전염물이 사람들이 밀집된 실내에서 더 높다는 것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아미티지 교수는 "극빈층의 아이들은 가장 뒤쳐져 있고 팬데믹이 지나가더라도 이를 따라잡을 자원이 적은 터라 이 사태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다.

벨기에 루벤대학의 사회학자 빈 반 랭거 같은 전문가들은 이를 "만들어지고 있는 사회적 위기"라고 표현했다.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너무 늦기 전에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성취 격차



청소년 시기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까지...솔직한 느낌 대화 나눠야 부모와 교사, 사회복지사, 정신과의사, 정치인들의 총체적 노력 필요

을 알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한 위원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른들만큼 높지는 않지만, 극소수의 소아과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바이러스에 크게 반응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게다가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건강 취약 계층에게 바이러스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의 위생 상태는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대부분의 아이들은 향후 몇 달 안에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기 힘들어 보인다. 여기에 격리상태에서 오는 고립 스트레스가 더해진다면, 인지감각사회 발전의 지연이라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심지어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정신질환 발병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극빈층이 입는 타격이 가장 크다. 때문에 폐쇄는 향후 몇 년간 전 세계적

우선 어린이의 지적 발달의 결과를 살펴보자. 폭설로 인한 단기휴교에 대한 연구들이 몇 가지 단서를 보여 준다. 2007년, 워싱턴DC 아메리칸대학의 공무학과 교수인 데이브 마르코트는 메릴랜드의 3학년, 5학년, 8학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조사했다.

학교 폐쇄의 영향은 가장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학교가 하루 문을 닫을 때마다 읽기와 수학에서 기대성에 못 미치는 아이들이 약 0.57%씩 늘어났다. 학교가 날씨문제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날은 1년에 약5일, 그 결과 아이들의 시험합격률은 3% 하락했다. 30명이 한 반인 교실에서 한 명이 시험에 불합격하는 셈이다.

분명한 것은 교육이 중단된 기간이 짧더라도 그 영향은 지속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의 위기로 필요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진다"고 말했다.

만약 학교가 9월까지 문을 열지 않는다면, 많은 아이들이 20주 이상 학교 밖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기존 자료로는 이 결과를 추론하기 어렵다. 마르코트 교수는 "기간에 비례해 학습 손실이 늘어나게 될지, 아니면 다른 요인까지 더해져 복합적인 손실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에 소비된 시간이 훗날 성인인 된 이후의 IQ와 관련 있다는 점을 보면, 장기간의 교육 손실은 평생 동안 아이들의 인 지능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르코트는 원격학습이 이를 막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그 차이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현실에서 같은 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배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말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일부 학생들은 기존의 방향 때보다 더 많이 퇴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악 수업, 박물관 견학, 도서관 학습, 여름캠프 등 지적 양분을 공급받을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규칙적으로 단련하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될 것이다.

팽창하는 불평등

모든 아이들이 받는 영향이 똑같은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미 중요한 문제가 된) 부유층과 빈곤층 가정의 교육성취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여름방학 동안 생겨나는 학습 손실은 아이들의 환경에 따라 다르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방학 동안 읽기능력을 향상시키는 반면, 교육자원이 적은 가난한 가정 아이들은 더 큰 손실이 나타난다는 연구도 있다.

정부가 홈스쿨링을 장려하고 있는 이 시기에, 홈스쿨링의 성

패는 좋은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공부할 수 있는 조용한 공간에 좌우된다. 홈스쿨링은 아이들의 학습을 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교육을 받았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부모의 존재가 있다는 전제도 필요하다. 아미티지는 "불행히도 이런 전제는 모든 아이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며 "많은 아이들은 학교가 폐쇄된 기간에 학업발달이 멈출 것이며 특히 소외계층 아이들의 학업성취도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13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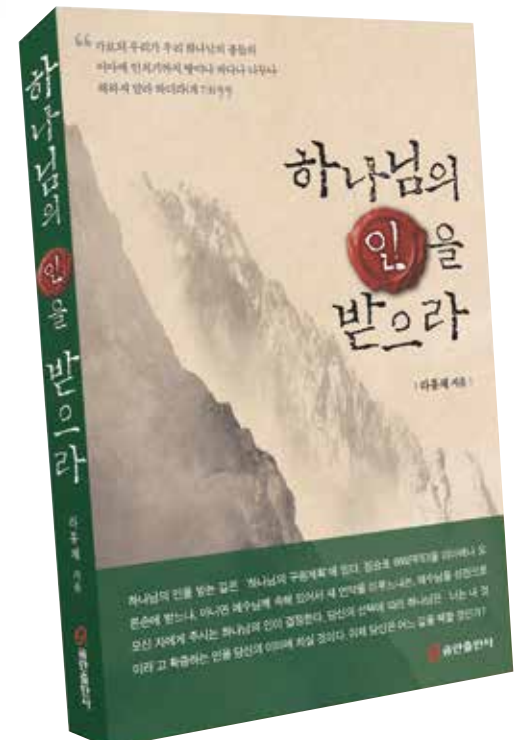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986-4400. Fax: (718)986-0074. E-mail: mcp@chpress.com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성경도표
●다니엘, 계시록(상,하)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다니엘계시록 DVD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공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

(1면에서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의 감정이나 혼돈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생물학적인 실제와 조화를 이루는 행동을 해야 한다. 성전환주의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길이 아니다. 따라서 크리스천들은 성(gender)을 문화적, 법적 차원에서 선택 문제로 보려는 시도를 반대한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깊이

다치게 한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크리스천들은,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존재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돼 있으며, 그들이 직면한 고통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그들도 알아야 한다. 크리스천들은 트랜스젠더 논쟁에 있어서 확신과 긍휼의 마음을 동시에 가질 필요가 있다. 트랜스젠더 논쟁에 있어서 성경적인 확신을 가진다는 의미는 각 개인이 친구나 가족들, 동료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것과 우리가 증오자, 혐오자로 고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때일수록 크리스천들은 인

류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성경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번영의 진정한 비전을 수호해나갈 용기가 필요하다. 우리는 뻔한 설명이나 예상이 가능한 반응을 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누구인지 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임을 계속해서 말해야 한다. 그러나 긍휼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논쟁에서 이기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변함없고 완벽한 말씀을 믿음의 근본으로 삼되 우리 마음엔 긍휼함을 가져야 한다.

모바일 건강코드, 주민감시 수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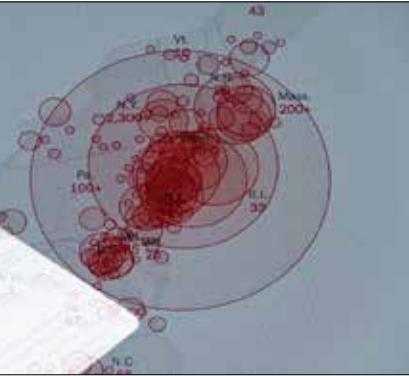
(1면에서 계속)

당국은 이런 건강 관련 앱들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며 바이러스 통제가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중국에 새로 도입된 자동화된 사회통제 시스템으로 유행병이 끝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 3월, 중국 남동부 장시성에서 어느 현지 정부가 발행한 문서에 따르면 건강코드는 '성(省) 전역을 광범위하게 커버하라'는 고위당국의 명령에 의해 적극적으로 홍보됐다. 또한 각급 정부는 시골이든 도시든 각 가구의 구성원 전원이 건강코드를 받았는지 조사해야 했다.

바이러스 확진자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음에도 건강코드를 신청해야 했다. 5월 중순, 산둥 성 허쩌 지급시 관할의 각급 현, 진, 촌에 대해 정해진 기일 내에 관내 모든 주민들이 건강코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저항하는 주민들에게는 현지 관리들이 무제한 자가 격리조치를 내리겠다고 협박했다.

“관리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건강코드를 신청하라고 압박하고 협박하기까지 합니다.” 허쩌시 차오 현의 어느 주민이 비터 원터에 말했다. “곧 학교가 재 개학할 텐데 건강코드가 없는 학생들은 등교를 불허할 것이라더군요.” 중국 어디에나 있는 얼굴인식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여타 감시 시스템과 비교해도 건강코드 매커니즘이 커버하는 사람 수가 더 많고 수집하는 신상정보도 더 광범위하다. 이제는 사람들이 출근을 하든, 택시를 타든, 병원에 가든, 쇼핑을 하든, 수많은 일상행위에 건강코드가 필요하므로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훨씬 혹독한 통제사회를 만들 수 있다.

반체제 인사와 종교인들에게 강화된 통제가 더욱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3월 3일, 중국 동부 저장성에서는 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던 어느 전능하신하나님교회(이하 전능신교) 여성 신자가 건강코드를 신청하다가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다. 그녀는 현지 정부로부터 앱에서 녹색



코드를 받은 사람만 식료품점이며 슈퍼마켓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터라 별수 없이 건강코드를 신청했다. 그런데 신상정보를 통해 그녀가 과거 체포된 전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찰은 즉각 강제로 그녀의 몸수색을 하고 사진을 찍고 혈액 채취까지 했다. 그들은 그녀가 여전히 전능신교 신자인지를 캐묻더니 느닷없이 유행병 진원지인 우한 시에서 온 것 아니냐면서 강제 '격리'가 필요하다고 그녀를 어느 호텔로 끌고 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심문을 받았고 경찰들은 신앙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녀를 다시 감옥에 보낼 것이라고 협박했다.

결론으로, 뉴욕타임스는 중국 '관리들은 건강코드 개념을 공공공간을 넘어선 영역으로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이번 디지털 사회통제 실험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짐작하게 한다고 분석한다. 다시 말해서, 중국 전역의 도시에서 '현재 주민들을 각종 바이러스 관련 앱에 묶어두는 다양한 방식이 실험되고 있으며 '이런 정보를 국가가 딱 주무르듯 하게 되면 각종 차별 조치의 시행이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심지어, 빨간색코드나 노란색코드를 받은 사람에게는 보훈료를 올릴 수도 있고 취업이나 승진 기회도 박탈할 수 있다.'"



시론

인공방부제 없는 아름다움으로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The beauty of no artificial preservations,' 맥도날드와는 또 다른 전략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햄버거 레스토랑인 버거킹의 광고 카피이다. '인공방부제를 넣지 않은 아름다움'이라는 말이다. 이 광고에서 버거킹은 자기가 햄버거가 썩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카피를 넣은 것이다.

우리 생각엔 썩어가는 버거킹 햄버거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사람들이 과연 사먹으려 할까? 버거킹은 썩는 것과 인공방부제라는 대조적인 컨셉을 통해 몇 년이 되어도 썩지 않고 양복주머니에서 발견되곤 하던 맥도널드 관련 뉴스를 접한 고객들에게 썩는 것이 신선한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던진 것이다. 글썽 맥도널드와 버거킹의 햄버거를 먹어본 지 오래 되어서 실제로 비교해볼 수는 없었지만, 두 회사의 광고

대전쟁은 흥미롭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얼굴이 백옥같이 맑거나 피부가 깨끗한 사람을 가리켜 백옥미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요즘 발달된 성형외과 보톡스를 맞고 얼굴 피부를 팽팽하게 해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런 피부도 나이가 들면 아무리 단장을 하고 수술을 해도 젊은이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사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단 버거킹의 광고에 승자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

전세계적인 비상상황이 계속되면서, 그동안 지켜온 교회생활의 틀이 흔들리면서, New normal의 교회생활, 아니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다. 경험하지 못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야말로 아련한 안개 속을 들여다보듯이 다양한 자료와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 전망할 뿐이다. 그러나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로서는 버거킹의 광고카피를 한번쯤 깊이 새겨보아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교회는 순수하고 맛깔나는 엄마손맛이 아니라 인공방부제 맛으로 채워지지 않았나? 예매가 그렇고, 찬양이 그렇고, 기도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설교도 인공방부제가 잔뜩 첨가되어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맛있었다. 감칠맛이 나고 중독성이 있었다. 찬양은 어떤가? 특별한 리듬이나 화성이 없이 불러지던 시편찬양, 멜로디 하나만으로도 하루 종일 눈물로 부르던 찬송가는 무시당하고 강한 리듬과 애잔한 멜로디, 특이한 화성들이 더해지면서 찬송이 갖고 있는 신앙고백과 간절한 기원과 영광의 찬양을 놓치지 않았나?

교회에도 유행이 있어왔다. 경배찬양, 큐티, 설교자의 의복, 기도패턴, 단기선교, 전도행사, 부흥회 등 유행에 따라가는 교회들 속에서 교인들은 혼란받고 혼란되어왔다. 한동안 모 목사의 역할과 흐름을 그대로 따라하는 같은 교단의 후배목사들의 복사판이 오죽하면 코미디 프로에서도 인용하며 인기를 얻지 않았던가.

이 모든 교회신앙에 터가 흔들거리게 된 바이러스의 침투, 다시 버거킹의 광고문구를 떠올려보자. 'The beauty of no artificial preservations,'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천연의 맛을 가진 곳이어야 한다는 말에 동의한다면 지금은 그동안 첨가되어오던 인공방부제를 버리는 시간이 된 것이다. 때가 되면 죽어 흙 속에서 썩는 게 인생인데, 보톡스의 힘과 피부미용의 힘을 빌어 유지하는 빛나는 얼굴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가?

순수신앙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그동안 지켜온 루터와 칼빈의 개혁신앙은 무엇인지, 그렇게 따르고 싶어한 웨슬리의 영성은 진정 무엇인지, 신학적 부족함은 있었지만 시대를 이으며 금을 찾기 위해 시커먼 광부가 되듯이 인공방부제로 치장한 모든 위장(偽裝)을 벗고 주름가득하고 때가 낀 손톱이지만 오늘도 눈발으로 나가는 정직한 농부의 새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는 말이 있고, 영어권에는 'See no evil, hear no evil, speak no evil'(나쁜 것은 보지 말고, 나쁜 것은 듣지 말고, 나쁜 것은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동안 교회가 잘못했다. 교인들이 잘못했다. 특히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잘못했다. 이 시대를 무사히 통과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다. 아젠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말이 아니면 듣지 말라. '내가 곧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단단히 새기고 첫 걸음처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지금부터, 나부터.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반서적/베스트셀러/성구/성화책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품전문
뉴욕(Tel. 718)762-0011
뉴저지(Tel. 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색소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직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의외의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치아시식(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The Korean Christian Press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718-886-4400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Presbyterian Church (USA)
우리의 입장
- 평화와 정의 사회의 구현을 위한 제언 -
미네아폴리스에서 지난 5월에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촉발된 전국 단위 시위는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시위의 본질은 흑인 생명의 존중과 불평등한 구조적 억압과 시민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생의 실현을 위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지향하는 의지의 발로에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소수이긴 하지만, 평화로운 시위 행렬을 벗어나 파괴와 방화와 약탈과 구타 등 가면 속에 숨겨진 증오의 실체가 우리를 실망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의 없이 평화 없다는 케치 프레이즈의 정신이 고양되고 개혁되고 성취되는 새 역사의 카이로스를 소망합니다.
성서에 집약된 예수님의 교훈은 모든 인종과 계층과 성별의 차별을 초극하는 일치와 삶의 음식에서 고난 받는 소외자의 신분 상승과 위기에 처한 자를 구원하는 선한 사마리아 인이 되는데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칼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공의의 강물이 흐르는 나라를 바라는 열망을 담아 이에 "우리의 입장" 을 선언합니다.
1. 성서는 한 생명이 온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임을 천명한다. 조지 플로이드는 이처럼 소중한 생명을 비인도적인 폭력에 의해 종말을 겪고 말았다. 그의 비극적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과 친지의 상실감과 아픔에 뜻을 모아 동참한다. 우리는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혁과 가치의 정립에 최선의 역량을 경주한다.
2. LA의 다문화 사회에서 생존하는데 필수 조건은 상호 문화의 차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하는데 있다. 인종간 삶의 방식의 차이를 수용하는 대신 인종의 다양성과 독특성을 차별화해서는 공동체 내에서 정상적 관계의 유지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공정한 기회와 행정과 사법의 편향적 결정을 배제하고 대신 새 문화의 창출을 통한 선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둘 것을 주장한다.
3. 다민족이 상생과 공존할 수 있는 원리는 상호 이해와 문화의 수용을 거쳐 화해의 공동체를 구축할 기반을 닦는 데 있다. 우리는 한인 사회가 28년 전 겪었던 4.29 사태의 악몽이 되살아나는 우려를 불식하고 그동안 이룩한 소통과 협력과 고귀한 대가 지불을 통해 축적한 지혜와 경험으로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하리라 확신한다.
4. 교회는 정의의 외침에 겸허히 귀를 기울이며 책임적 존재로서 인권 신장의 선구자와 화해 조성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 성서에 명시된 사회적 위임 명령을 실천하기 위해 행동하는 크리스천임을 각성하고 역사와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우리는 교단(PCUSA)의 선교 원칙과 방향에 동참하고 지역 교계와의 에큐메니칼 연대를 공고히하여 현 난국을 극복할 능력의 임재를 위해 기도한다.
2020년 6월 10일
미국장로교(PCUSA) 남가주하와이대회 한인교회협의회(KPC)
회장 최형호 장로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한국을 조국으로 섬긴 사람들...

서울 녹번동 은평 평화공원에 군복 차림의 동상이 서있다. 6·25전쟁 때 서울 수복 작전 때 녹번리 전투에서 29세로 전사한 미국 해군 대위 윌리엄 해밀턴 쇼를 기리는 조형물이다. 동상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성경 구절이 새겨져 있다.

해밀턴 대위는 일제 강점기였던 1921년에 한국에 파송을 받았던 아버지 윌리엄 얼 쇼의 외아들로 1922년 6월 5일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는 평양 외국인 학교를 마친 후에 아버지의 모교인 오하이오의 웨슬리언대를 졸업하고 2차 세계대전에 해군 소위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참전했다. 해밀턴은 1947년 한국으로 돌아와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근무

하며 한국해안경비대 창설에 기여했다.

제대 후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중 6.25 전쟁이 터지자 젊은 부인과 두 아들을 처가에 맡기고 재입대를 했다. 이때 그는 부모와 주변 친구들에게... "내 조국에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공부만 하고 있겠는가? 조국에 평화가 온 다음에 공부를 해도 늦지 않다." 유창한 한국어로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한 뒤 해병대로 보직을 바꿔 서울 탈환에 나섰다. 인민군 매복조의 습격을 받아 녹번리에서 전사를 했다.

그의 숭고한 사랑에 감명받은 미국 고향교회 교인들이 기증한 1만4500달러로 아버지 윌리엄 얼 쇼가 1956년에

대전 목산 언덕에 기념 예배당을 세웠는데 지금의 목원대학의 채플이라고 한다. 해밀턴의 부인은 남편을 잃었지만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이화여대 교수와 세브란스 병원의 사회사업실에서 봉사한 후 은퇴하면서 한미 양국으로 부터 충무, 은성 훈장을 추서 받기도 했다.

해밀턴의 두 아들들도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한국에서 홀브라이트 장학 사업을 펼치면서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고 둘째 아들은 오하이오 법원판사로 재직하면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라 윌리엄의 4대 손, 해밀턴 대위의 손자는 연대 의대에서 편집자로 근무했고, 손녀는 오산의 공군기지에서 장교로 복무했다고 한다.

일찍이 백낙준 박사와 몇몇 지인들이 해밀턴 대위의 조국 사랑에 감격하여 1956년에 녹번리에 해밀턴의 기념비를 세웠는데... 지금도 6월이 되면 해밀턴 쇼 선교사 가족들의 헌신을 기리는 지인들이 찾아와 저들의 송고한 삶과 사랑 앞에서 눈물을 흘린다고 한다.

다음 서울 방문 때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오래 전에 녹번리에서 살았는데도 몰랐던 사랑이었기에 더욱 애착이 간다. 후암의 구한말 조선을 자신들의 조국이라고 여기며 가문의 대를 이어 밀알 되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머리 숙인다. 지금도 한국 구석구석에 묻혀 있는 수많은 밀알들의 삶을 묵상하며 호국의 6월을 돌이켜 본다.
jkim47@gmail.com

푸/른/초/장

정기태 목사

(뉴욕새벽별장교회)



둘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고 회복시키시는 관계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본문은 훗날 이스라엘이 앗수르를 통해 당하게 될 극심한 고난, 즉 멸망과 포로 상황을 상징하고 그 후에 여호와와 회복하심의 은혜가 있을 것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개혁개정판 번역으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원문상 본문은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하는 문장으로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해줍니다. 비록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국가적 멸망은 불가피하지만 그 후에 여호와와 회복의 은총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본문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를 찢으셨으나'에 해당하는 '타라프'의

사람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저희가 죄로 인한 멸망 가운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곳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저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할 때,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돌아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삼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본 예언은 여호와께서 고난 중의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시되 조속한 시일 내에 그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할 것을 강조하는 예언입니다.

이러한 본문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기독교론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속히 회복케 하시는 것이 일차적 의미

를 예언한 충분한 구절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라는 표현에서 '둘', 혹은 '셋'이라는 숫자는 구약성경에서 수나 양이 그리 많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습니다(욥5:19; 잠30:15).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틀 후에', 그리고 '셋째 날에' 일일킬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속한 시일 내에 그리고 확실히 회복시킬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 절의 말씀은 금요일 오후에 무덤에 묻혀 토요일 하루를 지내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간을 날짜로 보면 사흘이요, 시간으로 보면 이틀인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도 본문의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일일킬 것이라는 예언은 구속사적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임을 나타내는 예언에 포함시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 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소생시키신 결과 그들이 경험하게 될 일을 나타내는 예언입니다. '우리 그의 앞에서 살리라'에 해당하는 원형은 본 절 서두에 나오는 '우리를 살리시며'에 해당하는 단어의 원형과 동일한 원어입니다.

이는 어원상 목숨을 스스로 유지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 사역의 의미, 누군가가 살게 하는 것, 살리는 역사로 인해 생명을 영위함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본문에서는 미완료 1인칭 복수로 쓰였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생의 역사로 살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을 강조적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 것이라는 표현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더 이상 우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외적상태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는 영적상태까지 회복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저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사랑)하고 회복(사랑)시키시는 관계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chungkitae@yahoo.com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요15:5, 6).

성경에서 성도는 포도나무인 주님께 붙어 있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주님과 떨어지면 말라져 버려지는 가지와 같습니다.

호3:5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

호세아서는 소선지사에서 제일 먼저 나옵니다. 호세아가 이 책의 저자라는 주장은(호1:1) 별다른 이론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는 주전 8세기 중엽에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은 아모스의 사역 도중이나 또는 직후에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호세아는 그 적을 앗수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호7:11; 8:9; 10:6; 11:11). 호세아는 선지자들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은 원초적으로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비극적인 종말기에 살았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섯 명의 왕들(여로보암 2세를 이은 왕들)이 25년간을 지배하였습니다(왕하15:8-17:41). 네 명의 왕들(스가랴, 살룸, 브가야, 베가)은 그들이 왕위에 있을 때 그 계승자들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호세아) 왕은 싸움터에서 포로가 되었으며, 오직 한 사람 '므나헴'만이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양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노 하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다가 '진노하심으로' 제거하신 이들 왕들은(13:11) '물 위의 거품같이' 떠났습니다(호10:7). 피 흘리며 피 흘림을 낳았습니까(호4:2).

'호세아' 왕은 초기에 앗수르에 굴복하였으나 디글랏 빌레셀 사후 반 앗수르 정책을 펴다가 드디어 주전 722년 살만에 셀의 침입을 받아 사마리아는 함락되었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은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호세아서 전체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1. 음란한 아내와 신실한 남편(1:1-3:5), 2. 음란한 이스라엘과 신실한 하나님(4:1-14:9)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말씀을 시작하면서 앞장인 호5:15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에서는 여호와로부터 징벌을 당한 이후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갱신과 회개

운동이 있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절 이하 1인칭 복수로 주어가 바뀌어 있으며 신앙갱신과 회개운동에 대한 권면과 회복에 대한 호세아 선지자의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호세아가 자신의 세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심정으로, 또한 훗날 죄로 인해 더 큰 고난을 당할 후세대 백성들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자 기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폭 넓게는 장차 일어날 회개운동의 양상을 내다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이해

할 수 있습니다.

즉 호세아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되돌릴 수 없는 일로 전제하고 이러한 멸망의 와중에서도 개인의 구원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선포함과 동시에 구원은 반드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관계입니다.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문자적으로 '너희는 걸어서 울지어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오라'로 번역은 어원상 걸어가라는 행위를 지칭하는 동사의 2인칭 복수명령형으로서, '너희는 걸어가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죄악의 자리, 범죄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에 해당하는 원형은 호5:15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곳으로 돌아갈 것임을 나타낼 때 사용한 것과 동일한 단어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있어야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호세아 6장 1, 2절

기본형은 5:14에서 '움켜'로 번역된 '에트로프'의 원형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일치는 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비판하시기 위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셨지만 이후 정한 시점에 이르러 치료하시는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에 해당하는 원형은 어원상 상처를 치유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입니다(레13:18; 신32:39). 특히 신32:39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낮게도 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낮게도 하는 유일한 존재로 선언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찢으신 것을 치료할 다른 세력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찢으신 상처는 다른 누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도 상처에 대한 해결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예언의 이면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예언을 기록하면서 이와 같은 기독교론적 성취를 알았는지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구약은 물론 신약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경의 기록자들이 비록 알지 못했던 사실까지 신약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여 기독교론적, 혹은 종말론적 해석을 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전15:3, 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신 후 다시 살아나사"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실을 일컬어 '성경대로 사할 만에' 살아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구약에서 '사할 만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구체적 언급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사할 동안 땅 속에 있을 것을 요나가 받았던 사를 통한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시켰지만(마12:40), 본 절의 사할 만에 일일킬 것이라는 예언도 그리스도의 사할 만에 이루어진 부활



세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정의” 빙자한 어둔 세력들 공격에 맞선 빛의 사자들의 영적 전쟁현장 찾아가다

미국 전역이 코비드로 꼭꼭 문 닫고 온통 마비되었던 도시들 안에 갑자기 폭력과 폭동의 무리들로 가득 메워지면서 거리들이 폭도들에 의해 불에 휩싸이고 작은 비즈니스들까지 만신창이 될 정도로 도둑을 맞는 거리들을 보며 이것이 과연 미국인가 하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류미디어의 한쪽이야기와 소셜미디어의 여러 이야기들로 인해 미국시민들의 의견들은 갈라지고 있는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1. 지난 5월말 경찰들의 부당한 판단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위조지폐를 냈는데 마약까지 한 사람처럼 행동이 이상하다”라는 신고를 받고 나온 경찰들이라서 George Floyd 라는 용의자에 대한 행동이 다른 때보다 거칠 수 있었다고 양보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의자가 “숨을 못쉬겠다”라는 여러 번의 하소연에 행여 그가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더라도, 총 4명의 경찰들이 서있는 상태에서 그가 진짜로 숨을 못 쉬는건지 확인을 위한 상태에서 결국 그 용의자인 George Floyd가 숨졌다는 것에 많은 시민들과 특별히 흑인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그동안의 역사를 볼 때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 되고 아름다운 나라로 알려진 이유는 미국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적인 자유언론”이 보장되고 보호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화롭게 잘못된 것을 고치려는 시위는 오히려 보호되고 격려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나쁜 경찰들로 인해 부당한 일이 생길 때마다 “사회정의”라는 명칭아래, 미국을 사회주의/공산주의로 바꾸려는 무리들이 슬며시 들어와 평화롭게 데모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갑자기 폭력과 폭동으로 바뀌어버려 도시

들과 국가를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곳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 지난 6월 초에 George Floyd의 형인 테렌스 플로이드가 자신의 동생이 체포되어 사망한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울먹이며 폭동을 멈출 것을 강력히 호소하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실, 내 동생이 죽은 이 자리에 이렇게 서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하지만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시위대들의 약탈과 폭동은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으며, 죽은 내 동생을

문제의 초점을 흐리고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하나됨을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하나됨을 파괴하고 있다. 이 분노는 지금 우리 마을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괴하고 있는데, 그것이 죽은 동생이 원했던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2. 어둠의 세력에 동참하는 이들이 회개하도록 기도!

George Floyd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혼돈의 영, 나누는 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도시사람들에 의하면 이런 무법적인 폭력테모가 있을 때마다 다 큰 버스들이 대절되어 돈을 받고 폭력테모만 하는 사람들이 수십에서 수백명씩 각 도시마다 다니며 불을 지르고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George Floyd가 사망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의 빛이 내려지다!

비록 사탄은 모든 사건들을 통해 “훔치고, 죽이고, 무너뜨리려고”(요10:10)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한싸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George Floyd가 사망한 그 거리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진정한 하나님의 평강 회복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인종차별”은 사라지고 오직 “One Race in God”이라고 외치며 All Lives Matter!(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와 용서의 눈물과 회복의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흑인들 사이에도 이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고 외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 일 말고 흑인이 또 다른 흑인을 살해하거나 폭행했던 일들은 왜 우리는 조용히 있었지? 그 흑인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아서인가? 왜 꼭 백인 경찰에 희생당한 흑인이 나올 때만 흑인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외치는가? 이것이야말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는 ‘위선’이야”라고요.

이런 위선에 분노한 한 흑인 중년여성이 페이스북에서 열변을 토하는 그 울림은 이번 일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에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아픈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길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다시 살려낼 수 없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다. 동생을 잃은 나도 이렇게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가? 도대체 왜 내 동생이름으로 이렇게 약탈을 강행하고 폭동을 일으키는가? 제발 Stop it. Stop it! 우리 가족은 평화를 추구하는 가족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이다. 제발 이제 평화롭게 해결하자. 내 동생은 여러분이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을 것이다.”

“너무 이상하지 않은가? 이런 케이스가 생겨날 때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은 시위한다는 명분아래 아무거나 부수버리고 더 난폭한 짓을 한다. 이젠 방법을 바꿔야 한다.”

테렌스는 앞서 ‘Good Morning America’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력은 지금 해결되어야 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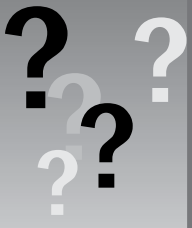
평강이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회복되도록!

Fox News를 제외한 주류미디어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지만, 뉴욕, 시카고, 캘리포니아의 대도시 안에서 데모하는 시민들을 보호하려다가 숨진 경찰들(흑인을 포함하여), 심하게 부상당한 경찰들, 불에 휩싸인 경찰차와 무자비하게 털려버린 동네 슈퍼마켓, 비싼 명품가게들, 한인들이 운영하는 보석상점과 마켓 등, 시위를 구경하던 22세 여성은 폭력을 휘두르며 다니는 누군가의 흥기에 맞아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시민을 구하려던 흑인 경찰은 또 다른 흑인에게 총을 맞아 피를 흘리다 거리에서 이틀째 시신이 버려진 상태인 걸 다른 시민이 발견, 시카고는 지금 1968년 때의 폭력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무법지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럿 리포트와 폭동이 있는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지난 몇 달 동안 우한 폐렴으로 미국에서 확진자가 200만 명을 육박하고 10만명이 죽어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은 신자의 영혼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요? 곧바로 천국에 가나요? 아님 낙원에 가나요? 아니면 예수님 재림 때까지 어떤 대기소에서 기다리나요? 성경으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가디나의 chun

A: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도 신자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지 오해하는 사람들이 보기보다 많습니다. 교회 장로나 권사, 집사님도 이 문제에 대해 엉뚱한 말을 하는 것을 상담하면서 많이 보았습니다. 1)안식교나 여호와의증인 같은 교단은 사람이 죽으면 몸과 영혼이 함께 멸절한다는 멸절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주의 재림 때까지 수면상태로 들어가 잠을 잔다고 말하는 수면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어떤 사람은 천국과 지옥 사이의 어느 대기소로 가서 예수님 재림 시까지 영혼이 대기소에서 쉬며 기다린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4)가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성자(saint) 외의 보통 신자는 소위 천국과 지옥의 중간상태인 연옥(Purgatory)에 가서 지은 죄에 대한 고통을 받으며 그 값을 다 치루면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의 네 가지 이론은 다 성경을 잘 모르므로 오해에서 일어난 상상이요 추론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은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성도는 죽은 후 영은 곧 셋째 하늘로

됩니다? 죽으면 육신은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 않고 바로 몸에서 빠져 나와 셋째 하늘인 3층천으로 갑니다. 이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을 말합니다. 이 천국을 낙원이라고도 부릅니다. 낙원과 천국은 다 같은 장소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고후12장의 하나님이 계시는 3층천의 천국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3층천은 셋째하늘입니다. 첫째 하늘은 구름이 있는 하늘이며 둘째 하늘은 별들이 있는 은하계의 하늘이며 셋째 하늘은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을 말합니다. 이 하늘의 3층천인 천국은 지구 밖의 어느 곳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구와 아주 가깝던지 아니면 아주 멀던지, 그 정확한 장소는 우리가 모릅니다.

1)전도서 12:7절을 보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죽으면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늘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2)요한복음 17:24절의 예수님의 대제사장 중보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히12:22-23절을 보면 이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듯이 하늘에도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곳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천상교회-승리한 교회)이 있는 곳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죽으면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가서 그곳에서 천국의 낙을 누리고 영생의 복을 누립니다. 4)계시록 4장의 24장로들처럼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보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9면으로 계속)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리더십 석.박사 MBA, DL, Ph.D.

리더를 위한 전문 학위과정

34년 전통, 70여개국 동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한국어, 영어, 특강, 온라인
미국유학 가능 (SEVIS I-20, J-1 Visa)

Graduate School of Leadership 리더십 대학원

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Major

Brain / Gifted Educational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Leadership 혁신경영 전략

International Culture & Arts Leadership 국제문화예술

Organizational / Ministry / Mission Leadership 조직, 목회, 선교

Real Estate Management Leadership 부동산 경영

Defense Fusion Leadership 국방융합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항공

Public / Political Leadership 공공, 정치

Sports Management Leadership 스포츠 경영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부탄의 상글라(SANGLA)

부탄은 인도의 히말라야, 티베트, 중국과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세계 유일의 불교 왕국이다. 상글라는 “천동 용의 땅”으로도 잘 알려진 이 작은 땅 부탄의 남동쪽 우기가 적은 삼립 지역인 타시강의 남쪽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그들은 티베트, 버마, 연남, 중국인들과 연관돼 구별된 문화적 특색이 분명하다. 그들의 언어는 상글라어로 불리는 시노-티베트 언어계의 말을 사용한다. 부탄은 외국의 거대나 여러 부분에서 인도를 많이 의지하고 있다. 또 부탄과 인도 사이에 새로 닦여진 길도 생기고 많은 상글라인들이 힌두어와 아쌌어를 배우고 있어 인도인과의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될 것 같다.

삶의 모습

상글라인들은 농경사회를 이루고 있고, 화전법을 사용하곤 한다.

올창한 삼립의 성장은 땅을 경작지로 사용하는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초목을 태움으로서 땅을 개간한다. 그리고 그 위에 3-4년 동안 쉴을 재배하고 그 땅이 불모지가 되면 버린다. 그러나 일부 상글라인들은 그 숲에서 넓은 부분을 개간하고 영구적으로 정착하기도 한다.

상글라의 집은 바위와 나무로 지어지며 보통 산비탈을 따라 흩어져 사는 정착민들이 각주 위에 집을 세운다. 대규모의 정착민은 “드종(drung)”이라고 불리우는 수도원 단체를 갖는데 기도 깃발들과기도 바퀴들로 표시한다.

“미툰(mithun)”으로 알려진 소는 부의 상징이고 종교의식에 바쳐진다. 돼지와 염소는 또한 팔거나 제사 때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 길러진다.

수질 오염은 부탄에서 가장 심

각한 환경문제 중의 하나로 시골 주민의 70%는 깨끗한 물을 갖고 있지 못하다. 정착지에 양수(揚水)를 펴기 부족하면 근처의 샘이나 개울에서 대나무 수도관을 통해 물을 끌어다 사용하기도 한다. 80%의 부탄인들은 전기 없이 생활하고 또한 대부분의 전기 공급은 인도의 언덕을 넘어 수출된다. 그러나 험준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먼 지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전기 공급을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한다. 시골 지역민들은 세금을 지불하지 않는 대신 그 지역에 학교를 세우거나 길을 닦는 정부 프로젝트에 대가없이 일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신앙

티베트 불교는 부탄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불교 사

제들은 종종 그 공동체에 의해서 지원받는다. 그러나 상글라는 민간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들의 윤리 종교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

타벳에서는 종교적인 비문들이 각각의 집 근처에 세워져 있는 것 발발 위에 적혀있으며 종교적인 문구가 포함된 비문들은 상글라인들이 걷거나 쉴 때도 계속해서 함께 이동하게 된다. 병은 언제나 악마나 영적인 것에 의해 생긴다고 믿고 있고 라마스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는 불교성전을 읽어줌으로써 악귀들을 내쫓는다.

게다가 사마니즘적 요소들이 신비스러운 종교행사나 미신풍습에 남아있어서 예언이나 악귀 등에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믿고 있다. 모든 마을에는 노역을 가리켰다는 “땅의 신” 또는 “심다그(shiddag)”를 가지고 있고 각 집마다 “타브-이하(tab-itha)”

라고 하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우상을 갖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부탄은 1974년까지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지 않았고 여전히 매해마다의 관광객 수를 제한하고 있다. 비록 그들은 최근에 웹 시골라가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여전히 “연약한 문화”라고 불리는 군주국을 보호하기 위해 위성방송 텔레비전은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억압적인 정부는 서방측에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으며 특히 다른 종교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상글라에는 라디오방송이 있다. 부탄의 한 청취자는 “나는 상글라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데 무척 좋아한다”고 말한 내용이 전해지기도 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취장암 투병 팀 켈러 목사 기도부탁

팀 켈러(69·사진) 목사가 지난 7일 SNS에 취장암 투병 사실을 공개하고 중보기도를 부탁했다.



켈러 목사는 “3주 전만 해도 암에 걸린 것을 알지 못했지만, 오늘 나는 국립의료원으로 간다”며 “다음 주 뉴욕에서 있을 취장암 환암치료를 받기 전 추가 검사를 받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이어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치료해 주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위대한 의사인 하나님이나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이라며 “몇 주 동안 여러 검진과 수술이 진행되면서 우리 부부는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정도로 매 순간 함께해 주셨다”고 고백했다. 기도 제목으로는 ‘의료 수단이나 하나님의 직접 개입으로 암이 사라질 수 있기를’ ‘우리 부부가 이번 기회로 세상의 기쁨을 뒤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할 수 있기를’ ‘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용기 낼 수 있도록’을 제시했다. 또 ‘치료의 부작용에도 계속 책을 쓰고 강의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21세기 CS 루이스’로 불리는 켈러 목사는 매주 성도 6000여명이 출석하는 미국 뉴욕리디머장로교회 설립자다. 2017년 담임목사직에서 물러나 교회 개척 사역인 ‘시티투시티’(CTC)에 나서 전 세계 100여개 도시에 교회 430곳을 설립했다.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두란노) 등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다. 2002년부터 감성선암으로 2년여간 투병하면서 시편으로 기도하는 법을 정리한 ‘팀 켈러의 기도’(두란노)도 펴냈다.

“직장 내 성소수자 차별 위법”

미국 연방대법원이 15일 게이와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차별을 받거나 해고당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보수 색채가 짙어진 대법원이 내놓은 판결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반세기만의 이정표”라며 감탄을 보냈다.



이번 재판의 주심을 맡은 닐 고저치 대법관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고용주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누군가를 해고한다면 여성이나 남성 직원에게는 의문을 갖지 않았던 한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을 문제 삼아 해고한 것과 같다”며 “성소수자 역시 민권법 7조의 성차별 금지 조항의 보호를 받는다”고 밝혔다.

미 민권법 7조는 성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개인의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민권법 7조가 지난 1964년 제정된 이래 성소수자에 게까지 확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미국 전체 주의 절반가량에서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는 게 불법이 아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성소수자들도 미전역에서 직장 내 작업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은 성 정체성 때문에 직장을 잃은 동성애자 남성 2명과 트랜스젠더 여성 1명이 각각 제기한 소송을 병합한 것이다. 이들은 우연히 성 정체성이 알려지거나 성전환 계획을

공개했다가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당사자 중 한 명인 스카이다이빙 강사 도널드 자르다는 자신과 함께 몸이 묶인 여성 고객에게 “나는 100% 게이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다가 해고당했다.

NYT를 포함해 미 주요 언론들은 성소수자 인권 보호의 분수령이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취임 후 급격히 보수화된 사법부가 내놓은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년이 넘는 재임 기간 동안 ‘중신직’인 연방법원 판사를 200명 넘게 임명했다. 한 사회의 기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원 판결을 보수 진영이 주도하기 위해서다. 현재 9명의 대법관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고저치 대법관을 포함해 5명은 보수 성향, 4명은 진보 성향이다.

하지만 성소수자 반대 진영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어졌던 고저치 대법관을 포함해 보수 성향인 존 로버츠 대법관까지 총 6명이 성소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른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만 이번 판결에 반대 의견을 냈다. NYT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년도 안 돼 미국 사회의 이데올로기 스펙트럼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보여준다”며 미국인들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라고 평가했다.

어? 코로나가 수상하다...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서둘러 완화한 나라에서 신규 감염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경제 활동 재개 한 달 만에 절반에 가까운 22개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했고 올여름까지 사망자가 14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워싱턴대 보건계량분석연구소(IHME)는 오는 8월까지 미국 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4만5728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IHME는 미 정부가 지난 4월 말 연방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료하고 경제 정상화 여부를 주정부 자율에 맡기자 사망자 예측치를 기존 7만2433명에서 13만7148명으로 배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8000명 이상 늘어 잡은 것이다.

이는 미국 대다수 지역이 봉쇄령을 완화하면서 사회적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가혹 행위로 사망한 이후 미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것도 감염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CNN방송은 존스홉킨스대 자료를 인용해 50개주 가운데 22곳에서 코로나19 발병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가세가 가장 가파른 곳은 플로리다주였다. 지난주 플로리다의 확진자는 전주 대비 46%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20개주는 신규 환자가 감소 추세를 보였고, 8개주는 큰 변화가 없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뉴욕주는 이날 78일 만에 경제 정상화 1단계에 들어갔다. 건설과 제조업, 도소매업 등이 부분적으로 재개되면서 최대 40만명이 일터로 복귀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뉴욕의 경제 재개가 희망의 여정이 될지 재확산의 계기가 될지는 불분명하다.

지난달 봉쇄 조치를 완화한 인도에서도 확진자가 다시 치솟고 있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

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26만6598명으로 전날보다 9987명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초 3000명 수준이던 하루 확진자가 한 달 만에 3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7일 하루 동안 세계에서 13만6000건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일일 기준 최고치다. 신규 감염의 75%는 10개국에서 보고됐고, 대부분 미국과 인도가 포함된 남아시아에서 나왔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화상 브리핑에서 “지금은 어느 나라도 폐달에서 발을 뗄 때가 아니다”며 코로나19 억제 노력을 지속해 달라고 촉구했다.

자택대기나 영업중단 등 봉쇄 조치가 경제에는 막대한 타격을 주지만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는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미 UC버클리 연구팀은 한국, 중국, 이탈리아, 미국, 이란, 프랑스 6개국의 코로나19 억제책을 분석한 결과 봉쇄 조치를 통해 약 5억3000만명이 감염을 피했다고 밝혔다. 한국만 놓고 보면 전 국민의 70%에 해당하는 약 3800만명이 봉쇄 조치 덕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과학전문지 네이처에 실렸다.

영국 임피리얼칼리지 런던 연구팀도 유럽 11개국이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지난달 초까지 실제 사망자(13만여명)보다 25배 많은 320만명이 목숨을 잃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미 신규실업수당 청구 10주 연속 감소세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주 연속 200만건 이하를 기록하며 10주째 감소세를 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여전히 역대 최고 수준이지만 한때 700만건에 육박했던 것에 비하면 크게 줄어든 상태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5월 31일~6월 6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54만건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5만건)를 소폭 밑돌았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지난 12주 동안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은 4천420만명에 달했다. 이들은 최소한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다는 의미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33만9천건이 줄어든 2천90만건을 기록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를 한 사람 가운데 일부는 일터로 복귀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규모는 10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5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도 감소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250만개가 증가해 ‘희망’을 날고 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감소세가 완만하다면서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노동시장의 장기적 도전을 말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평가다.

로이터통신도 노동시장이 코로나19로부터 자유를 위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보도했다.

“사망 폭인, 경찰에 전기충격총 쏘다”

백인 경찰이 흑인 청년에 총격을 가해 숨지게 만든 사건이 지난 12일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또 다시 발생해 인종 차별 논란과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가 더욱 거세게 불붙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백인 경찰의 무력

에 9분 동안 목이 눌러 사망했던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는 다르다는 주장이 공화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애틀랜타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흑인 청년 레이샤드 브룩스가 경찰의 전기충격총(stun gun)을 빼앗아 경찰을 향해 쏘았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공화당 반격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공화당의 유일한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캇은 14일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 상황은 우리가 봤던 플로이드 사건과 이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에 비해, 확실히 매우 덜 분명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백인 경찰이 완벽하게 잘못했던 플로이드 사건과 달리, 이번 브룩스 사건은 공화당 진영에도 변명거리를 제공해 상황이 더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을 수사하는 조지아주 폴턴 카운티의 폴 하워드 검사는 “브룩스가 경찰의 체포 시도 전까지는 매우 협조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의 브룩스 체포 시도는 정당했는지, 브룩스가 왜 경찰의 전기충격총까지 빼앗으며 도망가려고 했는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이 더욱 절실해진 상황이다.

지난 12일 애틀랜타 경찰은 패스트푸드 식당인 웬디스 매장의 ‘드라이브 스루’ 통로를 한 차량이 막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숨진 브룩스는 당시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경찰은 브룩스를 깨워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은 음주 단속에 걸린 브룩스를 체포하려고 했다. 그러나 브룩스는 저항하며 현장에 있던 2명의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다음 과정이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뉴욕타임스(NYT)가 조지아 수사국(GBI)으로부터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경찰관 개리 톨페는 전기충격총으로 브룩스를 쏘고, 동료 경찰관 데빈 브로즈넨은 톨페를 도와 브룩스를 체포하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브룩스는 브로즈넨의 전기충격총을 빼앗았다. 브룩스는 도망치던 중 뒤로 돌아 톨페를 향해 전기충격총을 한발 발사했다. 그러나 브룩스는 조준 사격을 가한 것이 아니라 도망치던 과정에서 전기충격총을 쏜 것이었다. 이후 톨페는 브룩스를 향해 3방의 총격을 가했고, 브룩스는 숨졌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권력 남용으로 보고 경찰의 갑압적인 무력 행사에 제동을 거는 정책들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의 케이샤 랜스 보트스 애틀랜타 시장은 “경찰이 치명적인 무력을 정당하게 행사하지 않았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보로 2018년 조지아 주지사 선거에서 석패했던 스테이시 애브럼스는 “브룩스 사망은 우리가 치명적인 무력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드라이브 스루’에서 자는 것이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의 스캇 상원의원은 CBS와의 인터뷰에서 “문제는 ‘용의자가 전기충격총을 쏘았을 때 경찰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점”이라며 “긴박한 상황을 진정시키고, 무력 사용을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스캇 의원은 그러면서 플로이드 사건과 이번 브룩스 사건이 다르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공화당의 경찰 개혁 방안을 이끄는 스캇 의원은 “현재 경찰 등 공권력에서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데 의문은 없다”면서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이 공권력에 제도적으로 인종차별주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애틀랜타 경찰은 브룩스에게 세 발의 총격을 가해 숨지게 만든 경찰관 톨페를 해임하고, 동료 데빈 브로즈넨은 행정적으로 전향했다.

교회 안으로

교회 문턱은 낮아야 한다. 누구든지 마음 편하게 문을 열고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 행편과 처지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실상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직업, 신분, 취미, 세계관, 학력, 출신, 가치관, 판단기준, 연령, 심지어 신앙의 연조도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토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교인들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통일성을 지니고 있다. 각각 다른 구성원들이 서로를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다. 영적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은 순수한 복음을 구심점으로 하는 신앙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인간적인 노력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 교회는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다.

그렇다면 현대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이 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교회의 문턱은 반드시 낮아야 한다. 교회 공동체는 그 안으로 들어온 자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이유가 분명하다. 자칫 종교성을 지닌 자들의 협동조합이나 사교집단과 같은 모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통일성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의해 실현된다. 어두운 영혼을 밝히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한 죄 사함의 믿음으로 회심을 경험하게 된다. 반드시 극적인 경험이 동반되거나 한 순간에 이뤄지지 않아도,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진정한 기독교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니게 된다. 교회 공동체의 통일성에 대한 판단을,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교회에 잘 속속하고 헌금생활을 하고 있는지, 담임 목사와 지도자들의 요구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지, 양기전 직분과 부서 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등의 외부적 기준에만 맡겨둘 수 없다.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종교 활동을 하는 곳이 아니다. 신앙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먼저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신하는 신앙이 내적으로 확고해야 하고, 그 신앙이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모든 외부적 요소는 종교적 활동에 불과한 것이다.

교인과 성도

타 종교를 믿던 자가 개종을 했다면 크게 기뻐할 일이다. 초기 초대교회를 구성한 성도들의 대부분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였다는 점과, 그 후 전도와 선교를 통해 기독교 신앙이 확산되면서 타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가 생겨났다는 점을 통해 십자가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켜 전혀 새로운 신앙을 갖도록 하는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다. 불교 또는

적 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나 일 것이다. 만일 이렇다 할 내적 변화에 대한 경험은 물론 관심조차 없고, 여러 종교가 주장하는 진리를 비교해본 결과 기독교가 가장 마음에 들어 선택하였다고 하다면 반드시 십자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도록 해야 한다.

종교로서의 기독교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성경은 종교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는 틀에서 설명한다. 물론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그 출발점을 하나님 자신으로 소개한다. 그 하나님은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역사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없었다면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14)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교 신앙 등 종교에 열심을 내다가 전향하여 교회에 출석하는 경우가 제법 많다. 또한 모태신앙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멀리하였지만 어떤 일을 계기로, 또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없었으나 성경을 접하고 난 뒤 기독교 진리를 이해한 결과 교회로 발을 향할 수 있다. 이민 교회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는 전혀 기독교 신앙에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고 있다가 이민생활 중에 필요에 의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

기독교는 종교인가, 아닌가? 어떤 의도의 질문인지에 따라 답이 다를 수 있다. 먼저, 만일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인간에게 부여된 종교성의 발로 정도로 이해한다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답해야 한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종교성을 부여받았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심으로, 인간이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분이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고, 신뢰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종교란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질문은 우문처럼 들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기독교와 종교의 관계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 전달된 복음을 중심으로,

기독교를 종교적 틀에 가두려는 오류는 반드시 중단 진정한 개혁은 먼저 내면 살피는 신앙회복으로 시작

는 경우가 빈번하다.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준다. 특히 완고하여 마음을 전혀 굽히지 않던 자가 다른 성도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큰 감동을 준다. 이런 상황을 두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노라고 고백한다. 실상 그렇다.

그러나 그가 교회에 출석하였기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고 속단할 수 없다.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 마음의 변화 받아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구원은 주님께서 베풀어주시는 것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어떤 신앙적 체험을 하였고 그 후의 영

것이다. 예를 들어, 자연에 담겨있는 창조의 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양심을 지니고 있기에 비록 완벽하지 않아도 도덕적 분별력을 지니고 있다. 문제는, 타락한 인간이 그 능력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즉, 죄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종교성을, 원래의 목적과 전혀 다르게 자신이 원하는 일에 사용한다.

이에 반하여, 만일 기독교 신앙을 인간이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라고 의미한다면, 기독교는 종교이다. 그러나 기독교를 종교로 정의할 때 반드시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타 종교인들이나 일반 종교에 관심을 지닌 자들의 내리는 정의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종교에 대한 정의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생명을 다해 그를 섬기는 삶에 집중하였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각 개인의 종교적 경험이 교회 공동체와 어울려 지속된다는 것이었다.

그들의 신앙이 완벽하였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 중에도 속사림이 변화되지 않은 채 신앙인의 모습을 보았다 결국 배교하거나 이단종파로 빠지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렇기에 교회 공동체는 더욱 각 성도들에게 참 신앙이란 바로 아는 일과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제창하였던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개혁의 대상

중세교회가 어떻게 변질되었기에 개혁의 대상이 되었을까? 우리가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 현대교회를 제대로 살피면, 그들의 모습이 고스라니 재현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세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각 성도의 내적 신앙보다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강조되면서 기독교가 매우 형식적인 종교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복음이 확장됨에 따라 교회가 조직화 된 것은 자연스러운 뿐 아니라 다행스런 일이다. 가정교회와 지역교회의 규모를 넘는 상황에 맞추어 구심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노력을 오히려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기독교가 서유럽 전역을 장악하게 되고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점차 초대교회가 가장 중시하였던 신앙의 모습,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것과 그대로 행동하는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치명적 실수였다.

기독교는 서유럽의 종교였다. 유럽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삶이 전개되었다. 사회 전체가 매우 종교적이었던다. 주일이 되면 미사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찾는 것을 당연시 하였다. 교회에 출석하는 행위가 구원을 약속받는 길이였기에, 특정한 신앙적 고민을 지니거나 의문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다. 중세교회의 신학 자체가 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아냈기에 성도들이 종교적 덕을 쌓는 일에 매달린 결과 외항주의가 강조되는 종교관이 자리 잡게 되었다.

종교개혁자들이 제시한 신앙은 외적 형식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자유분방한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르친 진정한 종교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 경건이, 성화된 삶이 강조된 것이었다. 즉, 그들은 종교적 형식의 틀 자체가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며 자신의 의지를 담은 신앙적 행동보다 먼저 성령의 역사를 통한 마음의 변화를 강조한 것이다.

현대교회 안에도 교회에 출석함으로써 종교적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다. 마치 교회가 구원을 베푸는 곳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형식주의는 근본적 교회개혁을 위한 중요한 필수내용 중 하나이다. 어떠한 신앙적 의지나 회생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고 변화를 받고 그와 연합된 삶을 지속하는 것이다.

기독교를 종교적 틀에 가두려는 오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진정한 개혁은 외적인 변화를 추구하기 전 먼저 자신의 내면을 살피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covenantcho@yahoo.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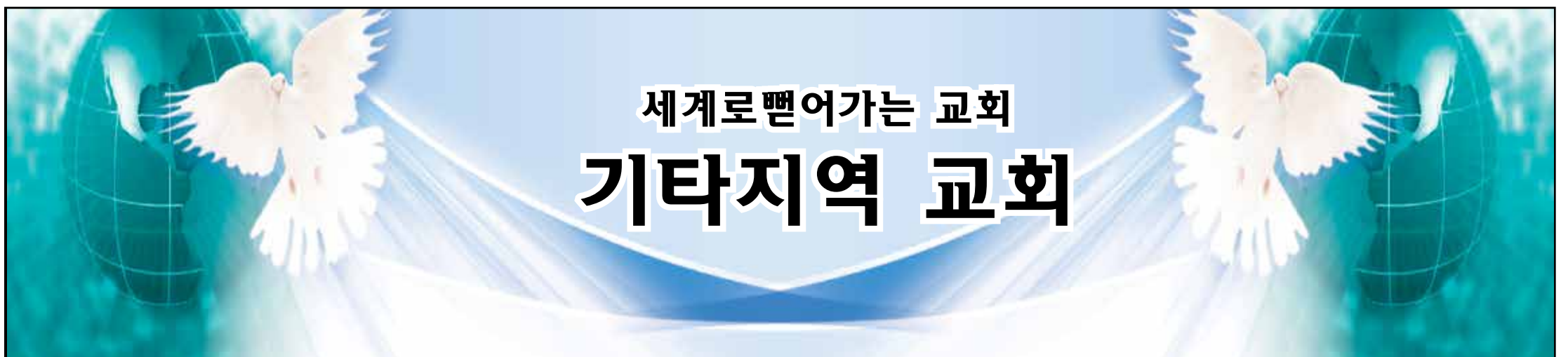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ori, Mongo, Bexcaun, Benel, Boston, Salut, Sial, Anidok, Alkansa, Anger, Elpas, Yeung, Killeen, Winsten, Juseu, Tacoma, Philadelphia, and Mission.

리더십 코멘터리 (113)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Untact 시대의 리더십 솔루션

영국에서 강아지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언택트(Untact) 시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언택트는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contact)에 반대를 뜻하는 'Un-'을 붙인 코로나19 사태 이후 생긴 신조어 중 하나다. 비접촉이라는 의미이다. 코로나 사태는 세계적 재앙이다. 이 계속되는 재앙 가운데 인류는 얻은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많다.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을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인간들의 관계와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파편화시킬 것이다. 더 두려운 것은 재난 뒤에 찾아오는 인간의 삶이 감성적 진공상태가 된다는

비관적인(diabolical) 새로운 질서를 암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는 세계질서를 영구히 변화시킨다'고 언급했다.

인류의 무분별한 자연 파괴로 야기된 미증유의 사태가 이번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이고 앞으로는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미래학자들의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날 소외와 격차이다. 무엇보다 교육에서 나타날 소외와 격차가 우리가 어떤 철학적 기초를 토대로 어떻게 제대로 대처할지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의 3가지 트렌드

온·오프라인을 독립적으로 보기보다 통합적 관점으로 이해 Doing교회에서 Being교회로... 다양한 목회 지원 그룹 필요

것이다. 이성의 지배 바깥에 있는 공감 능력의 회복과 마스크로 가려진 서로의 얼굴에서 눈빛을 별빛으로 주고받는 감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뜻밖에 귀해진 것도 있다. 바로 강아지이다.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국에서 애완견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영국에서 장기간 봉쇄가 계속되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자녀를 즐겁게 해줄 방법을 찾는 가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애완견을 외로운 노부모에게 선물하려는 자녀들도 반려견 붐에 동참했다.

격리봉쇄와 인류의 미래

포스트 코로나19가 세계인의 화두가 되고 있다. 격리봉쇄는 개발 국가와 선진 국가에서 공히 가난을 번창시키고 국가의 경제를 붕괴시킨다. 또한 경제라는 토양의 기반을 전반적으로 위태롭게 만들고, 학교와 대학 같은 사회시스템을 위협에 빠뜨리며, 중소기업들을 파산으로 몰아가고 있다. 향후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헨리 키친저는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의 국제정치경제학 교수인 대니 로드릭 박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 세계 경제는 정부 역할의 확대, 초세계화(hyper-globalism)의 퇴보, 경제 성장률 둔화라는 3가지 추세 가 수년 간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는 "집단행동 문제 앞에서 시장의 무능함과 위기 대응 및 국민 보호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이번 위기로 인해 "보편적 건강보험, 보다 강력한 노동시장 보호책, 그리고 핵심 의료장비와 관련한 국내 공급망 보호" 요구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국으로 하여금 글로벌 아웃소싱을 통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보다 생산의 탄력성과 신뢰성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리더십 코멘터리

최근에 교회에서 실행되고 있는 온라인 예배는 교회 기능의 통합성 상실이라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래서 지금은 영적 리더들이 온라인에서 결여된 교제와 나눔 문제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온라인 교제의 실효성을 격하하

는 것은 기성세대만의 이해일 수도 있다. 젊은 세대는 온라인을 통해 충분한 정서적 교감이 가능하다. 그래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온·오프라인을 독립적으로 보기보다 통합적 관점으로 이해함이 필요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생존과 변화의 요구에 직면한 교회의 상황을 진단하고 세 가지로 미래교회를 전망해 보았다.

첫째로, 미래사회에서는 예배 없는 교회, 교회 없는 예배의 지속으로, 공간에 치중된 외형적 교회주의가 쇠락할 것이다. 반면에 미디어 대응력을 갖추고 상황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적응할 수 있는 작고 가벼운 체질의 교회들이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성도의 모임이라는 교회의 본래성은 지속되어야 한다. 성도들이 회합하는 행위 없이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진면목과 실체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미래교회는 예배 방식에서 온라인 매체를 적극 활용하되, 교회됨의 고유한 본래성을 침해, 변질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미래교회는 Doing 교회에서 Being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 사실 기존의 교회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사명 아래 지역사회와 소통하지 않고 독단적 행보를 보일 때가 많았다. 미래교회는 무언가 하겠다는 입장보다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커뮤니케이션을 나누며 함께 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를 위한 교육과 훈련, 지역사회 단

체·조직 및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대화와 협력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로, 미래교회에서는 교회 형태 및 목회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교회가 등장했을 때 교인들이 현장 교회를 유연한 태도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교회 형태가 요구되는 시대는 젊은 목회자와 신학생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래사회는 목회자 혼자 목회하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이다. 다양한 분야의 목회 지원 그룹이 필요하고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신학뿐만 아니라 사회 관련 전문 역량이 모여야 한다. 이들이 목회를 지원해주는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글로벌 재난상황 시 교회는 당황과 혼란의 반복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회학자 로드니 스타크는 초기 기독교가 이교도들과 달리 이웃 사랑의 규범으로 전염병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본 것이 기독교 확산에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강조했다. 리더는 위기가 위험한 기회를 명심해야 한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자포자기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때이다.

sondongwon@gmail.com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다시 교회로

코로나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세 달 만에 교회들이 서서히 다시 교회 건물에 모여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지지율을 고려한 정치적 발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 교회가 필수적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과연 교회는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지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어느 해인가 우리 교회가 표어로 했던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라는 문구가 상징하는 것처럼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건물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각 사람이 구성원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다. 또한 어느 곳이나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석 달 넘는 기간을 집에서 각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모이는 교회는 우리에게 건물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교회의 기능에는 예배, 선교, 교육, 섬김,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귀기가 있다. 교회의 모든 기능은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개인의 경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섬기며, 서로 가르치며, 교제하는 가운데 점점 더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 생애 처음으로 긴 기간 동안 각자의 집에서 주일예배를 드려야만 했을 때 가장 그리워한 것이 "함께"의 경험이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함께 모여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성도들의 얼굴을 보며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공동체의 경험이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으로 제한될 때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설문결과가 나와 있다. 바나리서치센터가 미국 내 목회자를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연결된 내용으로 실시한 설문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집에 머무는 기간 동안 미국 목회자의 반 이상이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30% 정도의 목회자가 정서적, 관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온라인 예배로 인해 교회의 필수 기능인 공동체 안에서의 사귀기를 통한 성도들 간의 영적 나눔과 채움이 어려워질 때 우리의 정서가 꺾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코로나바이러스 이전에도 디지털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나 성경공부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은 유튜브를 통한 설교나 예배의 홍수 속에서 혹사라도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다. 며칠 전 유튜브를 보니 "죽알성교회"라는 희한한 이름의 교회 설교가 올라와 있었다. 이름이 하도 특이해서 찾아보니 한국에 거점을 둔 온라인교회였다. 담임목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가 오기 훨씬 이전부터 "죽기 전에 알아야 할 성경"을 가르치려는 목적으로 유튜브에 설교를 올린 것 같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죽알성 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다. 그 목사의 복음을 향한 열정은 알 수 없지만 아무리 설교가 좋아도 유튜브로 설교만 듣는 온라인교회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목회자의 인품이나 삶보다 설교로 목회자를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회의 다른 기능을 무시한 채 말씀 선포만을 교회의 기능으로 착각하고 오도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교회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 되려면 말씀 선포뿐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양육과 돌봄, 성도 간의 나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선교의 기능이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예배가 온라인화 되면서 혹사라도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의 편안함에 익숙해졌다면 이제 다시 옷깃을 여미고 설례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lp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p>뉴욕망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수요예배: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p>	<p>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p>	<p>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p>	<p>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p>	<p>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경음), (917)373-3411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p>
<p>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 www.cpcny.org, Tel: (516)387-8940, 8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p>	<p>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p>	<p>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영양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예배: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p>	<p>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1부 오전 7:30분 주일2부 오후 1:50분 찬양예배 오후 3:0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토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 기도회: 월요일 오후 7:30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p>	<p>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a.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p>	<p>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도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p>
<p>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p>	<p>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기도회: 오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p>	<p>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공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p>	<p>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p>	<p>멕시코 현지인 선교사 담임목사: 임한권 선교사 1. 멕시코 변석 신학교 교수 2. 임파넬 신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00 S. N.Y.: Tel: (718)886-00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7)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2. 미국 청교도들의 정착 (定着, Settlement)과 확장(擴張, Expansion)

윌리엄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는 순례자들이 영국을 떠나 플리머스(Plymouth)로 간 것은 “형식적인 의식과 기도서에 대한 논쟁과 종교적 박해와 교황적이고 반기독교적인 허튼 소리 때문이었다”라고 했다. 또한 윌리엄 허버드(William Hubbard)는 매사추세츠(Massachusetts)로 이주한 이유를 “이 어두운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였다고 기록했다. 청교도들은 종교개혁에 대한 기대가 수포(水泡)로 돌아가자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 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인지, 아니면 교회개혁을 방해하는 왕을 수반으로 하는 영국 교회를 떠날 것인가를 놓고 고민한다.

그들 중에 영국 국교회를 떠나 이상적인 교회 건설하기를 택했던 무리들을 청교도 분리주의자들이라고 불렀고,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에 남아서 개혁운동을 전개했던 무리들을 비분리주의자들이라 불렀다. ‘분리주의자(Separatists)’라 칭한 이유는 로마카톨릭의 잔재를 가지고 있는 영국 성공회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 그러한 교회로부터의 분리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분리주의자(Separatists)’라는 이름은 바울 사신 고린도후서 6장 17절 “나와서...분리되어야 한다”(Come out...be separate)고 말한 부분을 인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분리주의 사상으로 인해 즉, 엘리자베스 여왕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은 죄로 존슨은 1592년에 투옥되었다가 석방된다. 후에 프랜시스 존슨은 상인들을 포섭하여 단체를 조직한 후 미국에

이민하여 분리주의자 중심의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했다. 배로우와 그린우드는 1593년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1593년에 제정된 비밀집회 법에 의하면 16세 이상 된 자로서 성공회에 불참하고, 비밀집회(성공회를 반대하는 사람의 집에서 열리는데)에 참석한 후 3개월 이내에 성공회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잉글랜드에서 추방되었으며 그들이 다시 잉글랜드로 돌아올 경우 교수형에 처했다.

이 법 때문에 잉글랜드에 있던 많은 분리주의자들이 1607년부터 영국 국교회의 탄압에 못 이겨 영국을 떠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던 화란(Netherlands)으로 이주한다. 로빈슨과 브루스터의 영도 아래 화란의 암스테르담 근교 레이든(Leiden)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초대교회의 생활과 가까운 삶을

의 경제적인 어려움, 둘째, 10년이 넘어가면서 필그림들이 나이가 들어갔으며 셋째, 그들의 자녀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함으로 학교에 다닐 수 없었고, 또한 더치(Dutch, 네덜란드인)인들과 결혼을 하고 세속화되어 가며 믿음을 잃어가기 시작했고 넷째, 복음주



메이플라워호

안인 일반인들로 채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된 것이다.

선교사 출신으로 타문화권을 30년 이상 체험한 필자는 분리주의자들의 이민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최고 문명국인 영국과 네덜란드에서의 현실적 체험과는 전혀

청교도 분리주의자들 종교 자유 찾아 화란 거쳐 신대륙으로 메이플라워호, 북서풍으로 원래 목적지 아닌 플리머스 도착

살았다. 교인수가 300명에까지 이른 그 그룹은 1620년까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교회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나온 것이다.

그러나 화란 역시 이상적인 곳은 아니었다. 심각한 경제적인 사정으로 비참한 생활과 그들의 자녀들이 화란의 방종과 비신앙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는 것을 보고, 신대륙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한다. 특히 브래드포드(William Bradford, 1590.3.19. -1657.5.9)의 저서 “플리머스 농장의 역사”에 의하면 화란(Netherlands)을 떠나 신대륙(the New World)으로 가게 된 4가지 이유를 기록했다. “첫째, 홀란드(Holland)에서

의적 청교도(Puritan)로서 미국 인디언들에게 예수그리스도를 전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서 신대륙으로 떠나기를 작정했다”라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겠다는 청교도들, 특히 그들은 “세계의 후미진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진 것이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위기가 발생한다. 분리주의자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그 계약서에 적힌 용어들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내걸어 그 모험, 즉 신대륙으로 못 간다 한 것이다. 결국 출항을 위해서는 그 빈자리를 청교도가

낮 설은 곳,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모’ 아니면 ‘도’의 모험이기 때문이다. 부부가 사별하면 스트레스지수가 100이라는 통계가 있다. 1967년 미국의 심리학자인 토머스 홀스(Thomas Holmes) 박사와 리처드 라헤(Richard Rahe)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이혼(73점)을 하거나, 구수(63점) 및 해고(47점)를 당했을 때보다 컸다. 그런데 정보와 지식이 전혀 타 문화권, 특히 비 문명권, 미지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거의 패닉(panic, 공황) 상태의 스트레스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신대륙으로 떠나기 전에 로빈슨 목사가 에스라 8장 21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말씀을 설교했으며 회중의 감사가 끝나자 그들을 위해 축도했다. 그리고 ‘모두 눈물로 서로 포옹한 다음 길을 떠났다’

1) 최초의 청교도 이민선, 메이플라워(May Flower)호

1620년 9월 16일(율리우스력 9월 6일), 메이플라워호(길이 약 30m, 폭 7.6m의 유럽 여러 나라와 영국 사이에 주로 포도주를 운반하던 화물선)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한다. 메이플라워호에 승선한 102명(성인 70명과 어린이 32명)의 필그림들(Pilgrims, 순례자)과 30명의 승무원들은 대서양을 건너 11월 9일 계속 케이프 코드(Cape Cod Bay) 주위를 항해하다가 12월 11일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Massachusetts)에 약간의 정찰대를 먼저 내리게 한다. 그리고 그 주위를 더 정탐한 후, 드디어 일주일 후인 12월 18일에 모든 필그림들이 신대륙 플리머스(Plymouth)에 하선한다. 이렇게 65일 동안의 대서양 항해기간 동안 윌리엄 벌튼

다. 선장은 항해에 자신이 있었으며 할 수 있는 수리를 했으며 방수 처리를 했으나 물은 또 섰다. 하나님께 맡기고 계속 항해하기로 했다. 폭풍과 높은 파도로 전진할 수 없었고 배는 며칠 동안 표류했다. 폭풍은 거대했다. 배가 폭풍 속에서 표류하고 있던 중에 ‘존 하우랜드’라는 청년이 바다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그를 마룻줄로 걸어서 바다 깊이 빠진 그를 올릴 수 있었고, 그는 의식을 잃지 않았고 보트와 갈고리로 그를 건져 올렸다.”

여호와 닛시(My Victory, flag),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다. 청교도들의 원래 목적지는 허드슨 강 하구의 현재 뉴욕시 인근으로 당시 영국의 버지니아 정착민의 북쪽 끝의 땅이었다(버지니아에서 플리머스까지 거리는 약 638마일이다). 그런데 미국 동해안은 항상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차질이 생겼다. 메이플라워호는 항로를 이탈하여 늦게 도착하였기 때문에 때는 겨울철이어서 케이프 코드(Cape Cod Bay)에서 머물며 배에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혹독한 추위와 괴혈병으로 반 이상이 죽는다. 1621년 3월 31일 살아남은 자들은 플리머스 해안까지 이동했고, 메이플라워호는 4월 15일 영국으로 돌아갔다.

결론적으로 청교도들의 플리머스 도착은 하나님의 강권적 임기(?)이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Virginia)는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처녀여왕’을 기념한 영국 최초 영구 식민지였다. 만약 예정대로 그곳에 도착했다면 청교도들의 자치권과 신앙의 자유는 전혀 보장받지 못했을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필자주: 알렌 카든(청교도 정신), 제프리 행크스(교회사를 빛낸 거인들), 오덕교(청교도 이야기), 윌리엄 브래드포드(History of the Plymouth Plantation), 배한국(미국청교도의 사상의 기원과 변천), 김승진(종교개혁가들과 개혁의 현장들)의 저서와 그 외 다수의 자료를 참조했다.]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삶에서 얻는 지혜

농촌살기는 생각하는 것만큼 낭만적이거나 목가적이지 않다. 나같이 시골에서 태어나 청소년기를 보낸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이다. 지긋지긋한 가난으로 배고픈 날이 그렇지 않은 날보다 더 많았던 사람에게는 진저리가 쳐질 수도 있다.

선교현장에 나갈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이까지 들어 국내사역으로 눈을 돌렸고 고향이 가까운 소도시에서 소재한 대학에 선교의 대상이 되는 유학생이 많아 선교센터를 준비했다. 의도치 않은 시골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다 코로나19라는 북

병을 만나 사람들과의 접촉 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그저 멍하니 세계적으로 퍼진 바이러스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다가 뭐해 이동식 컨테이너를 가져다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주변에 몇 가지 채소를 심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물을 주지 않아도 늘어나나보다. 상추 몇 포기하고 고추 대여섯 개, 토마토 두서너 개로 시작했던 것이 점점 늘어나 기왕 할 바에는 고추도 더, 썩갠 열무에 좋아하는 고구마까지 심게 되었다.

채소는 심기만 한다고 되지 않는다. 가꿔야하기 때문이다.

거름도 필요하고 물도 줘야 하고 무엇보다 풀을 매는 것은 싸움보다 더 치열하다. 뽑는다고 뽑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풀이 남아 있다. 노년을 맞은 부부가 시골에 내려가 여유롭게 살겠다며 농촌에 집을 마련했는데 재미로 가꾸기 시작한 텃밭에서 뽑고 뽑아도 끝이 없이 자라나는 풀에 지쳐 시골살이를 포기했다고 한다. 풀의 생명력은 참으로 질기다. 어떤 악조건에서도 죽지 않는다.

옛적부터 새벽까지 땅이 물렁해질 정도로 비가 촉촉이 내렸다. 비온 뒤는 풀을 뽑기가 매우 수월하다. 땅이 물을 머금었을 때는 웬만큼 뿌리를 깊이 내린 풀일지라도 끊어지지 않고 잘 뽑힌다. 가뭄 뒤에 단비가 내리면 풀의 입장에서 물도 충분히 빨아들었으니 이제 맡껏 자라서 무성해져야지! 춤을 쳤을 것이다. 그런 풀을 생각하며 문득 어리석은 부자 생각이 났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

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도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눅12:15-21). 풀이 사람과 같을 수는 없되 비온 뒤의 무성한 풀을 보며 얻은 삶의 지혜였다.

농사꾼은 풀과 싸우지 않는다. 이제는 풀을 죽이는 약들이 많아 농지에는 거의 제초제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풀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제거되지 않는 것이 풀인 까닭이다. 풀을

뽑으며 내일이나 모레면 다시 풀이 돋을 것이란 생각을 하다 최악도 그러함을 깨달았다.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주인노릇을 하는 죄악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뽑으면 다시 돋는 풀처럼 죄악도 그러할 것이다.

풀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죄악도 제거되지 않는 것임을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 했으니 사람은 그저 죄악을 줄이기에 힘쓰면 된다. 세상의 죄악을 다 제거하겠다고 덤비기보다는 나의 죄악과 내 이웃의 죄악을 줄이기에 힘쓰다 보면 그렇게 줄인 기에 힘쓰다 보면 그렇게 줄인 만큼 죄악은 줄어들 것이다. 또한 오늘 제거한 나의 죄악은 내일 다시 돋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며 풀을 뽑노라니 서둘러 나의 손놀림에 여유가 생겼다. 아픈 허리를 펴며 거북목처럼 뻣뻣해진 목을 풀면서 찬송이 흘러나왔다. 진리를 깨달은 자유함이었다.

옛것에는 감나무 밑에 무성하게 우거진 풀을 베었다. 처음 사용하는 예취기는 낫살고

공포스러웠지만 예취기의 칼날이 훑고 지나가는 자리가 말끔히 베어지는 것을 보면서 경이롭기도 했다. 특별히 나의 손놀림에 의해 정해지는 경계 즉 벨 곳과 그냥 버려둘 곳이 정해지는 것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되새기기도 했다. 물론 능동적이고 완전한 신 하나님의 섭리를 나의 손놀림에 비교하는 것은 가당치 않았으나 거기에서 얻어지는 지혜는 내게 은혜였다. 나를 만세 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기에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선교사요 목사로 구별하여 세워주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다.

풀으려 하면 꽃 아닌 것이 없고 꺾으려 하면 풀 아닌 것이 없다는 말처럼 삶 속에서 얻는 지혜는 무한하다. 삶 속에 담겨있는 지혜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적용할 것인가는 그 나름의 몫이며 또한 지혜일 것이다.

hanmackim@hanmail.net

신앙상담

(5면에서 계속) 5)계시록 20:4-6절처럼 그

영혼이 주님의 보좌 가까운 보좌에 앉아 주님과 왕노릇(통치) 하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계20:4-6). 그래서 예수 믿고 죽은 영혼들은 천상

의 하늘, 천국에서 현재 천년왕국의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부활한 육신과 만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육간에 영생을 누리

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은 빌립보서 1:23절의 바울의 소원과 같이 “내가 그 돌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으면 그 영혼이 하늘로 올라갑니다(Ascending into Heaven). 한 시간도 안 되어 천국(낙원)

에서 눈을 떠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눅23:43).

남가주 현장예배 재개 3주째

14일 갯스비전교회 등, ANC온누리교회 새벽기도 시작

남가주지역 한인교회의 현장 예배가 재개된 지 3주가 지났다. 선한목자교회(고태형 목사), 세리토스신교회(방상용 목사), 샌디에고소망교회(이창후 목사), 좋은마을교회(신원규 목사) 등이 지난주 현장예배를 재개했으며 ANC온누리교회(김태형 목사)는 8일부터 월-금요일에 한해 새벽기도회를 본당에서 시작했다.

14일 갯스비전교회(임금빈 목사), 말씀위의교회(김명구 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오명찬 목사), 인랜드교회(안환 목사), 포도원교회(정영민 목사), 좋은비전교회(최준우 목사)가 현장예배를 재개했다.



갯스비전교회 주일예배에서 임금빈 담임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14일 주일 오후 12시30분 임금빈 담임목사 인도로 시작된 갯스비전교회 예배는 이광준 장로가 기도한 뒤 임금빈 목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눅3:1-14)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임 목사는 "본문에서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세례요한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

하게 되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확실한 회개가 요구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 죄에 대한 회개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진정한 회개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며 "회개는 죄를 깨달아 돌이켜 고치는 것이다. 깨달음의 기준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을 통해 바른 진리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안에 흘러넘칠 때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남가주 한인교회들은 여러 상황을 관망하며 7월에 현장예배를 재개하려는 교회들의 모습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박준호 기자)

미드웨스턴 올가을 교육학박사과정 신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이 2020년 가을학기부터 교육학박사(Ed.D) 한국어 과정을 개설한다.

이번 오픈 교육학 박사 과정은 총 40학점(9과목)으로 공통필수 3과목, 전공필수 4과목, 전공선택 2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전공과목으로는 △문화 해석과 인식 △응용 통계분석: 측정과 검사 △인생 전기발달과 교육 실천 △연령별 심리와 제자도의 교육학적 융합 △4차 산업혁명과 신교육이론 △상담 교육 △교육이론과 사역실천의 통합 △고등교육의 교육원리와 방법론 △교육기관행정 △교육리더십, △기독교 영성과 정체성 교육 등이다.

본 과정에는 양승헌 교수, 김명호 교수, 심민수 교수, 이효정 교수, 박경환 교수, 박영주 교수, 장주동 교수가 지도할 예정이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학장인 박성진 교수는 "기존의 교육목회학 박사과정이 교육학과 목회학을 융합시켜 교회 교육의 환경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접목시킬 방법론에 초점을 둔 과정이라면, 교육학 박사과정은 다양한 기독교 교육기관의 환경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의 환경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에 중점을 둔 전문적인 교육학 학위과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교육학 박사과정은 선교지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신학교를 포함해 교육 사역을 하려는 선교사들에게 매우 유용한 학위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미드웨스턴은 남침례회(SBC) 산하 6개 신학대학원 가운데 하나로 ATS(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와 HLC(Higher Learning Commission)에 정식 인가돼 있다. 현재 한국부는 620여 명으로 한국어로 제공하는 학위과정 가운데 북미 최대 규모다.

미드웨스턴 한국부는 4년 전 미국의 유수 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한국어로 진행되는 성경사역학 철학박사(Ph.D.) 과정을 개설해 올해까지 6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3년 전에는 선교/설교/상담 목회학박사과정을 개설해 다변화하는 교회와 사역 현장이 필요로 하는 목회자를 전문적으로 실재적으로 양성해왔다.

미드웨스턴 입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학교 웹사이트(www.mbts.edu/ks)나 최새롬 사모(이메일 ks@mbts.edu 816-414-3754)에게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드웨스턴신학대학원)



온라인으로 진행된 월드미션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임성진 총장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대학원(63) 대학(38) 총101명 졸업

2020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학위수여식

월드미션 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 제 29회 학위수여식이 6일 오후 1시 온라인으로 열렸다.

임성진 총장은 "인본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이 팽배해 각기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하고 자신과 과학을 우상화했으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세속적 가치관이 흔들리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감으로 의심과 분노와 혐오로 가득 차게 됐다"라며 "이런 시대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이며 WMU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

거 함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어 한다. 따라서 WMU공동체는 우리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겸손과 사랑을 실천하므로 만방에 진리의 빛을 비취야 할 것이며 오늘 졸업하는 학우들은 어지러운 세상에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선목 부총장 사회로 열린 학위수여식은 학사보고, 학위 수여로 이어졌으며 허지에 학우가 특송을 부르고 임성진 총장이 총장메시지, 훈철화 학우가 답사, 윤석연 학우가 간증했으며 송운철 교수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자"

CMF선교원 6월 정기예배 및 선교사 모임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지난 6월 6일 오후 5시 CMF회관에서 6월 정기모임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철민 장로의 사회로 시작한 6월 정기예배는 CMF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으로 시작돼 제프 김 선교사(영국선교사)가 대표 기도한 후 강순영 목사(JAMA 대표)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세웠던 청교도, 그들에게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신6:4-9, 28:1-2)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강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국에 진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갠도록 우리를 이때에 미국 땅에 보내주셨다고 믿는다. 청교도 미국이주 400주

년을 맞아 미국에 빚진 자이자 제 2의 청교도로 부름 받은 우리 한인 기독교인들이 먼저 청교도의 순결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채형병 목사(CMF) 인도로 먼저 △내 자신의 회개 기도한 후 △인종간의 화합과 △한국과 미국지도자와 교회지도자와 △선교를 위한 회개와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축도로 마쳤다.

CMF에서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장학금을 모금해 수여했으며 가을학기에도 모금행사를 계속 할 예정이다.

▲문의: (562)483-0191 (정리: 박준호 기자)

뉴욕호신교회 장로 임직식 온라인 중계

뉴욕호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장로임직식이 ARPC 북동노회 주관으로 6월 7일 주일예배에 이어 열렸다. 임직식은 김덕원, 이호성 장로 임직식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역자와 임직자 그리고 교단 관계자 일부만 마스크를 쓰고 참가하고, 성도들과 가족들은 온라인으로 예식에 참여했다.

설교는 이용호 목사(전 노회장)가 역대하 7:16를 본문으로 영상 설교를 했으며, 권민 박영수 목사(아름다운제자들의교회), 축사는 김홍석 목사(뉴욕늘기뻐교회)가 맡았다.

문석호 목사는 두 장로들을 인수



하며 "임직자들이 온성도들과 선교사까지 모든 면에 모자람이 없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탁월한 헌신의 사람들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기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살롱장로교회 거리두기 현장예배 지속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의 행정명령 2단계 조치로 5월 24일 이후 예배당 예배를 하고 있다.

동 교회는 교회당 입구와 출구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원칙에 의한 자리배정, 마스크 착용은 물론 세정제 사용과 발열 체크 등 감염에 대한 최선의 방비를 하고 있다.

나성균 목사는 "더욱 감사한 것은 마치 기다리기도 하였듯이 오픈 둘째 주부터, 매주 새 가족이 등록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며 "앞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기회에 어떻게 부응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라 당회원들과 교역자, 예배준비 팀과 함께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 6월 14일 주일에는 자립선교를 하고 있는 박영홍 선교사가 가족방문차 본 교회에 출석해 선교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 선교사는 현지 땅 1만 평을 개간해 아보카도, 두리안 등을 경작해 자립케 하는 교육선교는 단기 선교 활성화, 후원 선교확보, 신실한 현지 일군 확충과 동원, 후임자 선정 등 기도제목들을 나누게 했다.

한편 살롱장로교회는 주중예배는 안전을 위해 보류하고 있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GMU, 무료 온라인 오픈 공개강좌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 무료 온라인 오픈 공개강좌(Open Lecture Event)가 16일 오후 2시부터 GMU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되고 있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GMU 행정처장 제임스구 교수는 "유럽역사에 있어 인쇄술의 발명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라틴어가 아닌,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인쇄되고 보급되도록 해 유럽의 기독교 전파에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오늘날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은 복음을 다양한 채널과 기술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에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GMU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변환하고 2020 봄학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을 실제 공개강좌로 준비했다.

이번 공개강좌의 제목은 조직신학1의 첫 번째 강의로, 접속방법은 학교 홈페이지(gm.edu)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GMU는 공개 강의 전 화상입학설명 페이지를 통해 영상 테스트를 하길 권장하며, 개인들은 PC를 사용하는 경우 Webcam이 있으면 좋고 랩탑이나 셀폰을 이용하는 자체 카메라가 있으면 된다고 안내했다.

▲문의: (714)525-0088, admissions@gm.edu (기사제공: 그레이스미션대학교)

흑인가정돕기 장학금 지원 캠페인

미주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진유철 목사)에서는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사건으로 확산되는 시위와 약탈, 폭력사태 등에 즈음해, LA 제10지구 그레이스유 의원후보의 요청으로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 더불어 잘 사는 흑인 커뮤니티"를 세워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인 교계가 연합해 흑인가정돕기 장학금 지원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이번 캠페인은 흑인가정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장학금지원을 하게 되며 대상은 부모가 교도소에 수감 중인 흑인 가정의 자녀에게 1인당 500불의 장학금을 지원하게 된다.

모금기간은 오는 30일(화)까지이며 모금액수는 1차녀 후원 500불(1구좌 또는 기타 액수 자유롭게 후원 가능)이며 후원대상 기관은 흑인커뮤니티 지원선교단체 "Watts up CDC"이다.

수표를 보낼 곳은 미주성시화 운동본부(Miju Holy City Movement)이며 주소는 621 S. Virgil Ave. #455, Los Angeles, CA 90005, 수표 보낼 때 Pay to order에 "Holy City"를 적어서 내면 된다. 모금이 완료되면 교계 대표가 현지를 방문해서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문의: (213)407-4569 (기사제공: 미주성시화운동본부)

트리니티장로회연합회총회 소피아백 목사안수

소피아백 전도사 목사안수식이 세계를향한비전교회(담임 김경희 목사)에서 지난 5월 23일 오후 3시에 열렸다.



축도했다.

소피아백 목사는 지난 1992년 도미 남가주남반의교회에서 집사로 신앙생활하던 중 목회자로 부름 받아 월드미션대학교에서 학부와 아주사피서피신학교에서 목회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동신대학교 목회학박사과정에 있다.

백 목사는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며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아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김상태 목사 별세

주님의교회 담임이며, 45대 뉴욕목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상태 목사(사신)가 6월 11일 오전 10시30분경 자택에서 지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64세.

김상태 목사는 성지순례를 다녀온 후 임기 말기인 2017년 후반부터 폐에 이상이 생겨 호흡기를 끼고 생활해왔다. 최근 건강이 악화돼 뉴욕교협에서는 김 목사를 위한 모금을 했다.

발인예배는 15일 오전 10시 중앙장사사에서 고인이 속한 PCA 한인동북부노회 주관으로 했으며(설교 노회장 정상철 목사) 장지는 파인론.



▲김상태 목사는 안양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대원을 졸업하고 1989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유족으로 김숙희 사모와 1녀가 있다.

▲연락처: (718)644-6406.

코로나19와 교회 [5]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지난 1월부터 우리 사회를 덮친 코로나19 사태는 조금씩 잦아드는 듯하다. 그러나 언제 감염병이 재 유행할지 모르는 상태라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올 가을과 겨울에 2차 대 유행이 올 것을 경고하고 있으므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코로나19라는 새로운 상황에 조심하고 적응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와 교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의 기본지침이 되면서 여러 모임이 중단되었고, 꼭 필요한 학습이나 모임은 온라인으로 대체되었다. 사람들이 이동을 자제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관광산업과 항공 산업은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었다. 대부분의 교회모임이 중단되고 심지어 예배마저도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었다. 그동안 당연시하던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게 되었다. 물론 '생활속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재유행이 발생하

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생활의 불편을 가져다 준 코로나19가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는, 인류가 설 새 없이 달리고 있던 이 상황을 지금 잠시 멈추라는 것이다. 인류가 이렇게 열심히 달려온 것은 결국 깨끗한 환경에서 평화롭게 가족들과 사랑을 누리며 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경제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고 있었음을,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교회 또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지금까지 교회는 성도들을 교회당으로 모으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당황해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교회는, 다시 이전처럼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교인들을 교회당으로 모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오

행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의 제약에서 벗어나 이제는 세계적으로 네트워크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교회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떠한지 민낯을 보여주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하게 만들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맞아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1. 인소성이 필요하다.

분쟁지역 휴전, 환경회복, 가족교제 증가 등 긍정적 면

리고 이제라도 본래의 목표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더라도 단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비춰준 희망의 빛을 따라 우리 삶의 체계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것이다.

코로나19가 비춰준 희망의

히려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사랑의 가정 문화를 만들도록 돕고 격려해야 한다. 가족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랑을 이웃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이끌어야 한다.

무엇보다 교회는 코로나19로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이 기회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이 살아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목회자는 부모들과 정기적으로 전화나 화상회의를 하며 가정기도회와 가정

지금껏 우리는 아웃소싱(바깥에서 자원을 얻는 방식)을 통해 신앙생활을 유지했다.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보면 자녀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 교육은 학교와 학원에 맡기고, 가정의 오락과 휴식은 대부분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에 맡겼다. 그리고 가정은 단지 이러한 바깥쪽의 활동을 지원하는 주변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 그 결과 예배와 교회, 학교가 단절되었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역



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은 많이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우리가 코로나19를 극복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이전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인류의 육식 중심의 식생활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규모 축산산업, 기후변화, 야생동물 서식지 침해, 지구촌 시대의 교역과 이동 등의 조건이 지속되는 한, 또 다른 전염병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전염병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생활 체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생활체계는 한편으로 전염병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이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면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주어진 생활 가운데 좋은 면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이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작지만 희망의 빛도 보인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쟁지역이 휴전을 선포해 평화가 찾아오고 있다. 공장이 멈추고 교통량이 감소하며 사람들의 이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회복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 모임과 회식이 사라지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다. 심지어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모든 프로그램이 없어지면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우선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은 '가정의 회복'일 것이다. 물론 현 상황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도 많다. 이와는 반대로 생계문제가 다른 여건이 허락치 않아 부모가 여전히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어 아이들만 가정에 방치되는 돌봄의 공백문제는 사회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돌아보아야 할 문제다. 하지만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가정에서도 가족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이 익숙하지 않고, 그런 삶이 주는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회제도로 회식이나 야근 문화를 개선해서 모든 노동자들이 퇴근 후 가정으로 돌아가게 해주어야 한다. 온라인 근무가 가능한 분야는 최대한 재택근무를 늘리고 유연 근무도 확대해야 한다. 직장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정의 기능이 회복되도록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온 가족이 요리 및 가사 일을 분담하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에 온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 아이들을 과도하게 학원으로 내몰지 않도록 입시경쟁을 완화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정말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가 경제회복을 위해 이런 부분을 등한시하더라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이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기회에 가정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목회자, 교사, 상담자로서의 부모 역할 확대 교회소그룹 훈련 필수, 평신도지도자 양성

에서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어야 한다. 교회는 개별 교회차원, 혹은 연합 차원에서 가 기도회나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의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보급하고, 실제로 진행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목회자가 교회의 많은 사역의 부담에서 벗어나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힘쓰면서, 그런 일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야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교우가정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19가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또 이후에 어떤 전염병이 찾아올지 우리는 모른다. 그리고 이러한 전염병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전 전염병이 빨리 종식되기를 기도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방역 지침에 최대한 협조하며,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웃을 최대한 돕는 일이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 코로나19의 고통 이면에서 비치는 회복의 작은 빛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추는 방향을 따라 우리 사회와 교회가 재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이 가운데 '가정의 회복'은 지금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장 주목하고 힘써야 할 부분일 것이다.

[이 글은 (사)기윤실 정병오 대표가 "좋은나무"에 기고한 글을 참조한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사태는 우리의 생활과 사회를 여러모로 바꿔 놓고 있다. 교회도 예외는 아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배형태와 사역의

할 수 없었다. 평소와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회 안에 소그룹 운동이 있었지만 많은 교회가 주일 예배참석 인원으로 교회의 규모를 규정해왔기에, 작은 그룹의 역할과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작게 보았다. 그러나 코로나사태는 이러한 소그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앞 장(가정 중심 신앙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에서 언급한대로, 포스트 코로나시대에는 인소성(조직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이 필요하다.

개인 영성 강화해 성도를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야

부모의 역할이 때로는 목회자, 때로는 교사, 때로는 상담자로서 단순히 하숙주인 같은 역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교회 역시 소그룹을 이끌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를 훈련시켜야 하고, 그들이 소그룹을 목자의 심정으로 잘 돌보고 바른 신앙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2. 소그룹훈련이 필수적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 사도의 선교팀도 모두 소그룹이었다. 그 소그룹을 통해 복음이 전파 되었고,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바꾸고 변혁시킨 주역들이었다. 이제 교회는 다시 핵심을 굳건히 하는 중대 기로에 놓였다.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는 소그룹이 존재할 때, 위기의 상황에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와 소그룹을 통해 비전을 공유하고, 소그룹을 통해 진정된 한 몸, 즉 '각 지체가 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함으로써 유대관계와 사랑으로 연결되고 붙어 있는 한 몸'

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개인의 영성을 강화해야 한다.

홀로 있어 타오르던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혼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에는 조금 신앙이 떨어졌어도 모이면 다시 회복되고 중심을 잡곤 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외적 자극과 도전이 전무할 때도 과연 개인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을 만큼 한국교회가 성도들을 훈련해왔느냐를 심각하게 질문하고 있다.

교회에 모이지 않고 온라인으로 집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 빠져리게 느끼게 되었다. 이제 교회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와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통해 느낀 점 및 제안

▲예배: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었다. △공동체(가정& 교회) 회복에 대해 깊은 목상을 할 수 있었다. △단절되었을 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교육적으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역

성교나 이슬람권 선교까지 희망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온라인 사역이 활발해지면서 IT선교가 주목 받고 있다. 디지털 성경, 온라인 제자양육 프로그램, 언어번역기 등 다양한 플랫폼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IT전문인들은 스마트폰 같은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해서 선교 범위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온라인 사역: △인터넷, 온라인사역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언택트 사역 개발과 함께 지켜야 할 본질만 붙들고 나머지는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비대면 사회에서 파생되는 외로움, 우울증, 관계의 욕구 등을 교회가 잘 채워줄 필요가 있다. △이후 비상사태를 대비, 전교인이 온라인 체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전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다. △메시지 홍수(중복 메시지)로 피로감이 생기고, 오히려 카톡을 확인하지 않는 부작용이 있다. 하나의 채널을 사용하여 전 교인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되어야 한다. △미디어 사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등 교회 구입 후 부서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영상이나 음악 라이선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저작권이나 라이선스 문제를 염려하지 않고 라이브 스트리밍에 음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교회 웹사이트에서 바로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Zoom이나 Live-chat을 통해 설교자들이나 성도들 간 자유롭게 받은 은혜를 나누거나 간단한 주제(topic)를 가지고 소통하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Zoom이나 youtube live를 통해 원거리 강사 특강을 듣거나 특별집회도 가능하다. △교회 모바일 앱을 통해 교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관계에서 신앙을 쌓는데 그 부분에 있어 온라인 교육의 한계가 있다. 한계 극복을 위해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자료와 방법 등을 제공해주었으면 한다. △

사 드릴 수 없었다.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찬양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 전부였을 것이다. 예전과 격식을 다 갖추는 것 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신앙생활이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예배자의 바른 자세임을 깨닫게 되었다.

△예배를 떠나 있던 교우들이 돌아오는 계기가 된 반면, 예배의 자리를 떠난 교우들이 없게 잘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가정예배 영상 제작(이중언어)을 통해 가정예배가 익

숙지 않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주일 대예배를 온 가족이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영어 자막이나 통역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고등부에서 보내는 문서 파일로는 예배 집중에 적합하지 않고 설교 뿐 아니라 기도 등 다른 순서도 통역이 되어야 한다). 동시통역 자막 서비스.

△개인이나 가족단위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배려하여 온라인뿐만 아니라 공동의 기도문이나 예배문을 마련해 개별적 예배와 신앙생활이 가능하도록 배려해주어야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하는 예배가 일상화 될 것이며, 따라서 교회는 예배, 교육, 전도, 상담 등을 위한 질 좋은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래는 가정 중심의 예배 및 교육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자녀의 신앙교육을 책임질 부모들의 교육과 훈련이 절실하다.

▲선교: △공중보건이 세계 국가력을 보여주는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울러 좋은 사례를 보여준 한국인들이 앞으로 의료

중고등부도 그들에 맞는 예배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교사훈련-zoom이나 google meet classroom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회 재개방 후에도 교사와 학생 간 zoom을 통해 소통 가능(QT sharing, prayers, bible reading...).

▲기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 하여는 why?(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성찰하고 회개)라고 묻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는 How?(어떻게 돕고 구제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할 것인지)라고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간이 멈추니 생태계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다. 단순한 삶, 생명을 우선시키고 연대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안전한 예배 환경 만들기 캠페인 - 주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으므로 매뉴얼을 만들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노년층을 위한 봉사-meals on wheels... △요셉도서관을 통해 e-book 대여가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다.

(다음호에 계속)

예장합동 9월 총회 주제는 ‘세움’

제105회...총회준비위원회 위촉하고 지향점 제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종준 목사)은 지난 11일 제105회 총회준비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오는 9월 개최되는 제105회 총회 주제를 ‘세움(planting)’으로 정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교단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한국교회 차원의 협력 모델도 제시했다.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오인호 목사)가 발표한 ‘세움’은 ‘교회 지도자들의 신앙 본질 세움’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세움’ ‘신학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총회 세움’ 세 가지다.

소강석 부총회장은 15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붕괴된 교회 생태계를 회복하고 재건하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과 영성이 바로 세워진 교회와 교단, 한국교회 차원의 연합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현재진행형인 예장합동의 104회기 주제는 ‘회복’이다. 현재 회기의 지향점을 바탕에 두고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기 위한 주춧돌로서 ‘세움’이란 목표를 설정했다. 총회 위기관리대응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서 코로나19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유사 위기 상황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목표도 그 연장선에 있다.

소 부총회장은 “코로나19 사태를 통과하면서 한국교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한목소리를 내고 정부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 경험했다”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교단과 한국교회 연합기관의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교단의 영향력 확대와 한국교회의 방향성 제시를 위해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할 기관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총준위는 이를 위해 교단 안팎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래전략발전위원회를 상설화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접속 ‘EXPLO 2020 통일 선교대회’

6월 25일 오후 6시25분 “온라인상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오는 25일 오후 6시 25분. 70년 전 발발한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며 한국교회 성도들과 기독교 실업인, 청년 대학생들이 온라인상에 모여 평화와 통일, 선교를 놓고 함께 기도한다.

CBS가 주최하고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CBMC경기북부연합회, 한국대학생선교회(CCC)가 공동 주관하는 ‘EXPLO 2020 통일 선교대회’가 이날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는 애초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전히 확산함에 따라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할 채 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대회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대회를 앞두고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먼저 임다윗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공동대회장(목사) “분단과 아픔의 상징인 끊어진 철책선이 있는 평화누리공원에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통일 선교대

회를 열게 돼 하나님께 감사드리다”면서 “본 대회는 구국 기도 성회다. 기도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뤄져 다시는 전쟁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박성민 목사(CCC 공동대회장)는 “현장에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고립된 것이 아니라(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퍼져 모두가 함께 참여할 기회를 얻은 것”이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대로 진행되리라 믿고 기도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명훈 CBMC 공동대회장은 “한반도의 분단보다 아픈 현실은 신앙이 분단된 현실이 아닐까 한다”면서 “기독교 실업인들이 교계와 다음세대 신앙의 새싹들이 CCC 청년들과 함께 한반도와 나라의 회복을 다지는 이번 대회에 함께 참가하게 돼 뜻깊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회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박동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이언균(CCC) 목사와 전용수 대표가 대회 취지

를 설명했다.

올해 주제는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Oneness in Christ)’다. 주최 측은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시간이 북녘땅을 바라보며 평화와 통일, 선교를 놓고 한국교회 성도들과 기독교 실업인, 청년 대학생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남과 북, 교회, 세대가 각각 하나 됨을 꿈꾸며 부흥의 원년을 선포하는 성령 폭발의 현상이 될 것”이라고 개최 목적을 밝혔다.

주최 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당일 현장에 참석 가능한 인원 규모가 정해지면 그에 맞춰 대회를 진행한다. 비가 올 경우 대회장 인근 파주 충만교회(임다윗 목사)로 옮겨 진행된다.

대회는 평화, 통일, 선교를 주제로 총 3부에 걸쳐 노래와 설교, 기도회 순서로 진행된다. 부흥한국 찬양팀의 찬양과 함께 나경화 목사가 ‘주여! 하나 되게 하소서’란 주제곡을 부르며, 가수 조성모가 ‘통일’을 주제로 노래한다.

대회는 CBS TV를 통해 중계되며, 인터넷으로는 유튜브 ‘CBSJOY’ 채널을 통해 볼 수 있다.

“코로나 이후 교회 갈 길은 변혁의 새길”

예장통합 ‘한국교회 대토론회’ 목회자 인식조사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일시적으로 닫혔다가 다시 열린 과거의 그 예배당으로 돌아가는 물리적 회귀가 아니라, 잃어버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변혁과 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건강한 영성을 회복하는 신앙공동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회공동체로서 교회의 역할이 강조됐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15일 서울 용산구 은누리교회(이재훈 목사) 서빙고성전에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대토론회를 열었다. 김태영 총회장은 “1000명을 초청하는 토론회를 준비하다 500명으로 줄이고 다시 250명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마스크와 라텍스 장갑뿐만 아니라 투명 플라스틱 안면보호대까지 나날 정도로 방역에 만전을 기했다. 김 총회장은 “재난 속에서 소중한 예배, 성찬과 세례, 다음세대 교육과 새신자 환영까지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하고 고통받은 이웃에게 다가가지를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사했다. 은누리교회 안수집사인 그는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해준 교회에 마음으로부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한다”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교회가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도움을 준 것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

에 상처받는 마음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종교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세션에선 김윤성 영락교회 목사의 사회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에 바란다’는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문화교회 장로인 김기태 호남대 교수가 발제했다. 김 교수는 “닫히고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한국사회뿐 아니라 한국교회도 근본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 바라는 점을 7가지 제시했다.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교회성을 강화하며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회의 대사회적 소통과 공감 능력을 제고하며 신천지 등이 단 집단 차단과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자녀 신앙교육과 가정예배의 회복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라고 했다. 온라인 소통 등 디지털 사역 강화와 작은 교회 및 자립 대상 교회 지원은 물론 무엇보다 교인 개개인의 건강한 영성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김의신 광주대일교회 목사는 목회 현장의 각론을 이야기했다. 김 목사는 “5월 마지막 주일 성령강림주일에 예배 회복을 준비했지만, 성도들이 많이 오지 못했다”면서 “이유를 물어보니 다른 성도들이 많이 오면 감염 위험이 높아질까 봐 6월 첫 주부터 나오려 했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전했다. 목회자가 선포하면

따라올 것이라는 목회자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목회자와 평신도 간 인식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도들 눈높이에 맞는 목회를 진단해야 한다는 게 요지였다. 김 목사는 또 “코로나19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3040세대와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 청년세대 등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른바 ‘사일런스 엑스더스’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임성빈 장로회신학대 총장은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의 교회사적 의미를 분석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사회학적 분석을 다룬 강연을 통해 “코로나19 대응행으로 인간과 문명에 대한 근본적 성찰이 중요해졌다. 이성이 갖는 한계를 자각해야 한다”면서 “삶의 미완성성, 이해의 불완전성, 실존의 유한성 등에 대한 새로운 영성적 자각이 요구되며 이는 믿음 소망 사랑을 통한 구원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선 예장통합 당회장 목사 1135명을 대상으로 지앤컴리서치가 긴급 실시한 포스트 코로나 목회자 인식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응답자의 68.8%는 코로나19로 인해 ‘현금이 줄었다’고 답했으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0.1%에 그쳤다. 코로나19 이후 교인 수 예측을 묻는 항목엔 49.2%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했고 40.8%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쥬빌리 복음통일 기도회 800회 맞아

“오직 하나님 은혜”...16년간 연인원 70만명 기도

‘피 흘림 없는 복음통일’을 위해 2004년 3월부터 시작된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삼일공동대표 오정현 목사)가 800회를 맞았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부흥한국과 사랑의교회 대학부가 손을 잡고 시작한 기도 네트워크로 16년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모임을 가졌다.

기도회 공동대표인 정성진 한국교회봉사단 이사장은 지난 6일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에서 열린 ‘2020쥬빌리코리아 기도큰모임’에서 “올해는 한국전쟁 발발 70주년 되는 뜻깊은 해”라면서 “복음통일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800회가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의 물결이 통일 대한민국의 새벽을 밝힐 것”이라며 “교단과 교파를 넘어 함께 모여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통일을 선물로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오정현 목사도 “16년간 연인원 70만명이 한결같이 상록수 신앙 자세를 갖고 통일한국을 위해 기도해 왔다”면서 “1000회가 되기 전 평양에서 특별새벽 부흥회가 열리고 복음적 평화통일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하자”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북한에서 핍

박받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과 북한교회 재건, 북한 땅에 신앙의 자유 허용, 한국교회 부흥 등을 위해 간구했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는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사랑의교회에서 열린다. 기도회에는 현재 65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14곳, 해외 18곳에 지역 모임이 있다. 그동안 원코리아연합기도회, 통일콘서트, 통일워크숍, 청소년 캠프, DMZ기도회 등을 개최해왔다.

사랑의교회는 기도회와 연계해 통일사역을 펼치는 ‘북한사랑의선교부’, 탈북 청소년 지원 및 차세대 통일지도자 양육을 위한 ‘반석학교’, 대북 협력 등을 위한 국제구호개발 NGO ‘사랑광주리’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선교사 재정 관리 어떻게

“선교 재정 감소는 이미 시작했다. 이 같은 현상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조용중 사무총장은 9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선교에 미칠 부정적 영향으로 재정 감소를 꼽았다. 코로나19로 경기는 악화됐고 현장 예배까지 드릴 수 없게 되자 많은 교회에서 현금이 줄었다. 긴급 재정에 나선 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것은 선교비라는 게 조 총장의 설명이다.

코로나19발 직격타를 이미 맞은 선교사들도 있다. 지비량으로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는 A선교사는 현지 국가의 락다운(봉쇄) 조치로 경제활동을 못 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소형 선교단체에서 파송 받은 선교사 중에는 선교비 재정이 끊기는 경우도 있다. 후원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줄일 수 있다’는 통보를 받은 선교사도 있다.

태국에서 선교하는 B선교사는 카카오톡 인터뷰에서 “최근 파송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선교지와 성도들을 버릴 수 없어 자비로 감당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선교 재정 압박 시작돼

KWMA는 지난달 회원단체와 교단 내 선교 담당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선교사의 필요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470명 중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 372명과 제3지역에 있는 선교사 13명, 코로나19나 개인적 이유로 일시 귀국한 선교사 85명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한국교회나 후원자에게 오는 선교후원금은 어떤 변화를 보였나’는 질문을 했다. 55%(213명)는 “줄었다”고 답했다. 55%(213명)는 “코로나19 이전과 달라진 게 없다”고 응답했고 “늘었다”는 선교사도 13명(4%) 있었다. 반면 ‘후원금이 줄었다’는 선교사가 41%(159명)나 됐다. 이 중 절반가량은 후원금이 반토막 났다. 2명은 후원금이 끊기다시피 했다. 임시귀국한 선교사의 후원금 현황도 비슷했다. 후원금

사가 사역지를 효

과적으로 섬기기 위해 재정 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실화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당면 과제가 됐다.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사와 후원교회·교단·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선교사는 현지 사역지를 키우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고 후원교회나 파송교단, 기관은 코로나19처럼 예측하지 못한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체계적 시스템으로 선교사 재정을 관리하며 활동하는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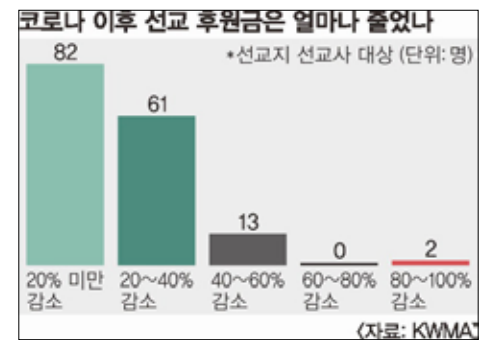
선교비·후원금 급감...감사편지 등 교회와 신뢰 쌓아야

이 줄었다는 선교사는 응답자 중 37%(31명)였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세계은행(WB)은 8일(현지시간)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마이너스 5.2%로 낮춰 잡으면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이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3배가량 가파른 경기침체라고 설명했다.

조 총장은 “교회 현금이든 수입을 충당해 온 선교사들에게 코로나19는 심각한 위기”라며 “엔데믹(한정된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비해야 할 때”라고 전망했다.

선교 재정 전략 수정에 공감

한국교회와 선교기관은 선교



을 수 있는 감사 편지 등을 보내는 게 좋다고 했다. 덕분에 아직까지 선교비가 끊긴 선교사는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선교 후원과 사역비의 공백이 생기는 만큼 계획하던 프로젝트는 종료하고 진행 중인 사업은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하도록 요청했다. GMP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출구전략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현지인들을 사역자로 키웠다. 선교사가 사역지를 떠나도 현지인들이 자연스럽게 선교 사역을 넘겨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경험 많은 선교사의 재정 운용 능력을 공유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

이 대표는 “그들은 현지 사정을 잘 아니 생존 능력도 뛰어나다”면서 “똑같은 돈으로도 선임 선교사는 신입보다 더 오래 버틸 수 있다. 이런 노하우를 매뉴얼로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KWMA도 선교사의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프로젝트는 자제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비즈니스 선교(BAM)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회와의 협조 방법도 연구 중이다. 조 총장은 “선교사 개인이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면서 “교회가 후원팀을 구성해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교의 창 (148)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선교사와 말씀생활

선교사 하면 대체로 어떤 모습이 연상되는가? 깡마른 체구, 햇볕에 그을린 퍽퍽된 얼굴이다. 고국을 떠나 이방에 외따로 떨어진 채 일생을 보내야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십자가이다. 나아가 업무에 쫓기고 사람들에게 시달리다 보면 물골이 형용어질 수밖에 없다.

잘 섭취할 수 있을까?

1. 말씀 듣기(Hearing)

말씀을 듣는 것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10:17). 사람들은 하

국어와 현지어로 교차해 들으면 유익하다. 똑 같은 말씀이라도 다른 언어로 들으면 그 감동이 다르며 이해도도 깊어진다. 말씀 듣기는 주로 침을 가질 때나 운전할 때가 좋다.

2. 말씀 묵상(Meditating)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시1:2)고 했다. 묵상은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고요한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다. 정한시간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생명의 풀을 찾아야 한다.

선교사가 다른 것은 좀 양보해도 아침 QT시간을 포기하면 안 된다. 이는 하루의 승패가 달려있다. 웃도 첫 단추를 잘못

로 하지 못하고 지나치기 쉽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말씀 속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씀 읽기는 철저히 계획적이어야 한다.

대표적인 방법이 메체인 성경읽기(M'Cheyne's Calendar for Daily Reading)이다. 이는 매일 4장을 고루 읽게 되어 있다. 그러면 1년에 구약 1번, 신약과 시편은 2번 읽게 된다. 우리는 성경을 자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읽게 되는데 이 방법은 성경의 네 시대를 동시에 비교하며 읽게 됨으로 좀 더 거시적인 안목으로 구약사의 흐름을 볼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연대기별 성경읽기가 있다. 시대별로 역사적 흐름을 따라서 읽는 것이다. 성경의 큰 맥을 잡게 되며 특히 초신자들에게 유익하다. 이밖에 성경의 목차순이나 아니면 문학

도 주 1회 정도는 시간을 할애해 해도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

특별히 선교사가 역량을 십분 발휘하려면 관심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살려 그것을 시리즈로 매뉴얼(manual)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작업이 없이 성경을 너무 병병하게만 알면 힘을 발휘할 수 없다. 여차피 집중적인 양육이나 강의 등을 위해서는 주특기가 있어야 한다. 깊이 있는 공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역자와 같이 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5. 말씀 암송(Recitation)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신 6:6). 마음속에 새긴다는 말은 마치 대리석에 글자를 정으로 파는 것과 비슷하다. 석수장이는 단번에 글자를 팔 수 없다. 어제 작업한 글자 위에 오늘 다시하고 내일 이어서 파야 원하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말씀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내용을 매일 반복적으로 되뇌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히4:12). 이렇게 암송은 우리에게 힘(Power)을 주는 최고의 성경공부임에 틀림없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은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끝내려고 한다. 지적 이해는 정적으로 심령에 새겨져야 의지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면 무엇을 암송할 것인가? 방법적으로는 주제별 암송이 있다. 이는 조직신학적

측면에서 신앙의 골격을 세우는데 유용하다. 다른 한편은 성경 안에 마치 금맥처럼 깊은 의미가 집중해 있는 곳이 있다. 이를 테면 산상수훈이나 로마서 8장 같은 곳이다. 이런 곳은 패러그래프(paragraph)를 통째로 암송해야 한다. 말씀암송도 듣기처럼 가능한 한국어, 현지어, 영어 등으로 시도하면 일거양득(一舉兩得)이상이 된다. 이때는 따로 시간을 확보하기보다는 주로 샤워, 산보, 주방일, 운전할 때 병행하면 좋다. 지루하지 않으며 시간을 절약하게 된다.

맺음 말

선교사의 주된 과업은 현지 영혼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본인이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현대 성경말씀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목숨을 걸 정도로 간절하고 집중적으로 찾아야 열린다.

일반적으로 선교사는 사역에 부담을 가지고 있다. 후원자들과 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가로운 말씀을 연구할 여유가 없다. 사역한답시고 동분서주하다보면 성경책을 펼친다 해도 건성으로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삶이 반복되면 자기도 모르게 심령이 굳어지고 일의 중독자처럼 보여지게 된다. 주의 일 한다면서 말씀을 제대로 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선교사는 모름지기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어야 한다. 그 비결은 누에가 뽕잎을 먹듯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jrsong007@hanmail.net

누에가 뽕잎을 먹어야 명주실이 나온다. 사역자는 일보다 말씀이 충만해 있어야 한다. 말씀을 건성건성 보면 바람에 난 겨처럼 되기 쉽다.

늘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에 귀가 매우 열려 있다. 세상의 소리 듣기에 익숙해 있으면 하늘의 소린 말씀은 잘 들을 수 없다. 설사 듣는다 해도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으로 흘리기 쉽다. 이러한 나날이 반복되면 심령이 무디어지고 강박하게 된다. 이에 반해 복된 소린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정신이 맑아지고 생각이 돌는다.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기분에 따라 여기저기 듣기보다 계획성 있게 성경책별로 안배해야 한다. 가능한 한

끼우면 나머지가 형용어지듯이 아침 묵상의 시간을 실패하면 자기 의지와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교사는 육신의 양식 이전에 영혼의 양식을 한 코 한 코 뜨개질하듯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한다. 이때는 많은 분량보다는 부담되지 않는 시가서나 복음서가 좋다.

3. 말씀 읽기(Reading)

말씀을 읽는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계1:3) 말씀했다. 바베 살다보면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통독하면 제대

성격에 따라 책별로 읽어도 된다. 아무튼 통독을 할 때에는 먼저 서론을 살핀 다음 소설책 읽듯 큰 줄거리를 생각하며 빠르게 읽어야 한다. 도중에 멈추고 쉬엄쉬엄 읽으면 큰 흐름을 잡을 수 없다.

4. 말씀 연구(Studying)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다. "베뢰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행17:11)고 했다. 사실 학자도 아닌 선교사가 매일 성경을 연구할 수는 없다. 그렇다할지라

드라마 예언서 (1)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를 함께 나누어 볼 것입니다. '드라마 구약'을 연출할 때 내용을 다루었던 예언서들-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을 제외하고 14권의 예언서를 함께 읽어 볼 예정입니다.

로 끝나지 않고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메시지도 반드시 함께 나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님의 심정이 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는 관점의 안경을 끼고 오늘 함

'오바다'라는 이름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으로서, 예돔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나 유다 외에 다른 나라들에게도 심판의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입니다. 요엘의 아버지 브두엘은 혼란한 시기에도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주되심을 선포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바다서의 내용

나 오바다가 예돔에 관하여 하나님께 받은 묵시다. 우리는(오바다와 오바다를 중심으로 하는 신실한 백성들)

리고, 수탈하는 자들을 통하여 너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을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너를 정복하고 너의 땅에 슬기로운 자들이나 군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두 칼에 쓰러지게 하겠다(옵1:4-9). 그런 치욕을 당하는 것은 네 아우 야곱(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악행 때문이다. 너의 형제인 이스라엘이 재난을 당할 때 너는 기뻐하지 말아야 했고, 예루살렘을 원수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어야 했다. 내가 온 세상을 심판할 때 너도 심판되되, 내가 행한 대로 다시 돌려받을 것이다(옵1:10-16). 그러나 그 심판 중에 시온 산으로 피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특히 야곱의 집은 다시 회복될 것이나 예서의 집은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옵1:17-19). 잡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서 추수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완벽한 심판이 될 것이다(옵1:2-12). 심판을 받아서 성전에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못함을 인하여 너희 제사장들과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은 슬피 울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지이다(옵 1:13-20).

여호와와 같이 임박하였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철저한 심판은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다(옵2:1-11).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켜 주시며 복을 주실 것이다(옵 2:12-26). (가장 큰 복은) 나 여호와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옵 2:27-32).

(나는 세상 모든 나라를 심판할 수 있는 온 세상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희 이스라엘과 유다 뿐만 아니라 두로, 시돈, 블레셋 등의 세상 나라들도 심판할 것이다(옵3:1-13). 그러나 나 여호와와 내 백성의 피난처와 산성이 될 것이다. (내가 함께 하는) 유다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거기 거하기 때문이다(옵 3:14-21).

다음 시간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dsukim@gmail.com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 관점 갖고 읽는다

오바다, 요엘 배경: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창조자

께 읽을 예언서는 '오바다'와 '요엘'입니다.

오바다서와 요엘서의 배경

이 두 예언자는 남방 유다에서 활동했습니다. 두 예언자가 활동한 시기와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대략 '왕하 15장' 즈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에게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돔과 싸우자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옵1:1). (그 말씀의 내용은) "나 여호와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아주 보잘 것 없는 존재로 만들 것이다. 그 이유는 너의 든든한 요새를 믿고 있는 너의 교만 때문이다(옵 1:2-3).

예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별들 사이에 거처를 만들지라도 내가 반드시 너를 끌어내

갓던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와서 유다 성읍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할 것이다"(옵1:20-21).

요엘서의 내용

브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남유다 뿐만 아니라 이방 열국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이다(옵1:1). (그 심판은 마치) 팔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코로나19 장기화 학교폐쇄...

(2면에서 계속)

영국에서 나온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가난한 가정 아이들보다 가정 학교에 약 30%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반 랭커 역시 인터넷이 연결된 조용한 학습 공간을 갖는다는 게 많은 아이들에게 큰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 그는 "많은 가족이 좁은 공간에 밀집해 살아가는 가난한 가정 아이들은 이러한 환경을

갖추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 폐쇄가 몇 달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가난한 가정 아이들은 학습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학교가 문을 열게 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폐쇄는 이번 1세대 자녀들에게 특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 밖에서 제2외국어 배우고 연습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학교가 다시 문을 열기 시작해도 끝까지 없을 것이다. 엘리스 앤드류와 사라 캣

탄, 모니카 코스타 디아스 등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인 '재정연구소' 연구원들의 연구는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이 학업으로 복귀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엘리스 앤드류는 "코로나19로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가난한 이들의 피해가 더 크다는) 이 점을 더 우려하고 있을 겁니다."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일자 리 감소 등)으로 빈곤층은 늘어날 전망이다. 이처럼 계층간 격차

가 커지는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 영향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 반 랭커는 "보다 어린 시기에 한 경험이 성인기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축적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쉬운 답은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쉬운 해결책은 없다. 교육 불평등 확대를 막기 위해서 교사들은 컴퓨터나 인터넷 연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반 랭커는 "교사

는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또한 아이들이 필요한 독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모바일 도서관 같은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는 "작은 것들이지만, 학습 지속 측면에서 정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는 이번 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아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손실을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

심리학자들은 부모들이 온 가족이 팬데믹에 대해 느끼는 감정

에 대해 솔직한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근본적인 긴장을 무시하는 것은 역효과를 낼 뿐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이들은 이러한 대화를 위한 건설적인 방법을 담아 비디오표 만들었다. 심리학자 라파는 "모든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상황은 나아진다"고 말했다.

오직 부모와 교사, 사회복지사, 정신과 의사, 정치인들의 총체적 노력만이 모든 계층의 아이들이 위기에서 벗어나 코로나19 이후의 세계에 대처하고 번영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원로칼럼

개혁신교회 전통에서 본 교회와 국가의 관계(하)



정성구 박사 (전 총신대, 대신대 총장)

둘째로, 화란이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서 교회의 재개혁이 일어났다면, 칼빈과 낙스와 멜빌의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스코틀랜드 언약도(Scotland Covenant) 등의 삶도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만하다.

국왕 찰스 2세(Charles II)는 직령을 내리기를 '집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하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는 알렉산더 헨더슨(Alexander Henderson) 목사가 중심이 되어 백작, 귀족, 장로, 평신도 등이 1638년 2월 28일 에딘버러의 그레이프라이어스(Greyfriars) 교회당에 모여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을 작성하고 대표자 200여명이 서명을 했다. 국가 즉, 국왕의 왕권이 교회의 순결을 짓밟고 성경적 교리를 파괴했을 때 장로교회 성도들은 분연히 일어나 항거, 정복종교와 같은 역사적 장로교회의 신앙을 사수했다. 그로 말미암아 1,200명의 성도들이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 추위와 굶주림으로 모두 순교의 잔을 마셨고, 그 후 50년 동안 18,000명의 순교자가 났다.

교회가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교권이 침해되고 교회의 순결이 짓밟히고, 성경진리를 허물어뜨리려고 할 때 분연히 항거하며 순교를 각오하고 일어났다. (이 신앙고백과 서명 원본은 지금 한국 칼빈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 독재자가 인권을 말살하고 교권과 교리를 파괴할 때는, 교회는 순교를 각오하고 분연히 일어나 항거한 예이다. 이때도 깨어 있는 지도자, 선지자가 필요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이나 지도자가 죄악으로 걸 길을 갈 때는 생명을 걸고 죄를 지적하였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제시대 때 한국교회는 1938년 신사참배 강요에 무릎을 꿇고 총회적으로 신사참배를 가결, 일본의 혼합주의 종교가 된 것은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이는 포용주의 정책을 포용해버린 사건이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이 북한 동포들을 도우러 갔다가 김일성, 김정일 우상 앞에 절을 했다면 이는 일제 때 일본의 신사참배와 같다고 본다.

한편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의 순결을 지켰던 주기철, 손양원, 이기선, 한상동, 손

교회와 정부 모두 하나님 주권 아래 있어 정교분리 아닌 정교구분

명복, 이인재, 박관준을 비롯한 50여명의 순교자들과 산 순교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국가가 교회의 순결과 거룩성과 진리를 허물려고 할 때, 그들은 생명을 걸고 항거한 것이다. 그리고 만주지역에 한부선 선교사와 J. G. 보스 선교사의 지도를 받은 만주의 한국교포 성도들은 결사항쟁으로 성경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500여명의 성도들이 신사참배 반대의 신앙고백을 하고 서명을 했다. 한부선 선교사는 이를 가리켜 한국의 언약도(Korean Covenant)라고 썼다. 이런 예들은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이다.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정교(政敎)분리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입을 틀어막고, 군국주의 일본의 정책에 순응하도록 만든 법이다.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반대자를 탄압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미국에서 제퍼슨 대통령이 정교분리를 주장한 것은 국가가 교회를 간섭해도 안 되고 교리체제를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정교분리를 말한 것이다. 그러나 성경 어디도 정교분리라는 등식은 없다. 성경은 구약의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왕이나 집권자들이 부패와 죄악으로 치닫고 있을 때, 불같은 메시지로 책망하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했다.

교회와 정치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다만 구분되어있을 뿐이다. 오늘날 국가정책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기울어지는 시점에 목회자들이 정교분리라는 도그마(Dogma)에 갇혀 아무 말도 못하고 병어리 흉내를 내는 것이 옳은가는 깊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흔히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권세자가 바로 셋을 때이지, 주권자가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거나, 정권이 부패하고 하나님 없는 반윤리적, 반도덕적으로 갈 때는 얼마든지 항거 항명할 수 있다. 오늘의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흔히 중립, 또는 중도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른바 '목회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묘한 논리를 세우는 것이 맞는가도 생각해볼 문제이다.

세상에는 중립이란 없다. 진리가 아니면 비 진리이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는 사상은 성경적이지 않다. 진리나 비 진리나, 성경적이나 비 성경적이냐를 확실히 구별해야 한다. 개혁주의 입장에서 보면 교회와 정부는 어느 쪽이 상위라는 개념은 옳지 않다.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리라고 본다. 정교분리가 아니고 정교 구분이다.

skc0727@yahoo.com

선교 펄리

페루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바이러스는 아시아와 미 대륙을 넘어 이곳 남미 페루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곳 페루는 3월 16일을 기준으로 전국경 봉쇄 및 Inter-State도로 봉쇄와 함께 전국민 법적 자가격리법을 발령함으로써 인하여 이번 Covid-19에 대한 가장 빠른 대처를 한 나라로 손꼽혔지만 그러나 그러한 빠른 조치에 대한 결과와는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오늘날의 확진자 약 15만여명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이러한 확진자 수는 매일 6-7천 명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가 발표한 통계의 숫자는 대부분이 감염에 따른 증상이 있는 자들을 검사한 결과의 숫자이며 무증상자들까지 생감을 한다면 감염자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실제적 사례로 지난 5월 26일 페루 보건부에서는 LIMA 시내버스 정류장 몇 곳과 전철 정류장 몇 군데에서 시민대상 무작위 검사를 실행했는데 거의 30%에 달하는 무증상 확진자들이 검출이 되었고 또 5월 15일 LIMA 시내의 재사직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는 장소마다 많게는 90%에서 작게는 39%에까지 달하는 상인들이 확진자로 검출되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상인들은 이러한 확진 진단을 받았기에 철저한 자가격리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벌여 하루 벌고 살아야하는 처지라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장사를 하다 잡히는 사례가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심각한 것은 의료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최선에서 일하는 의사, 간호사 및 경찰관들의 감염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1차 방어선 붕괴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제가 사역하고 있는 Huaraz 같은 지방일 수록 더욱더 심각하며 이를 위해 이곳 페루의사협회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한 협조를 부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재 페루한인들 사이에도 의사협



회를 돕고자 나선 상황이며 3주부터 모금운동을 시작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하여 저 또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이곳 Huaraz 병원장과 Tarica 시청에 일반 마스크 500개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이 마련되었다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곳 페루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용 3M사의 N95 마스크는 개당 \$25에서 \$30까지 이르러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기도 하고 그마저도 품질현상이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실을 저희 파송교회에 알리고 또 파송교회에서는 모두가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이라도 재 페루한인회를 통한 페루의사협회를 도울 뿐 아니라 이곳 Huaraz병원과 경찰청에 필요한 소량의 마스크 및 의료장비라도 구매하여 기부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주에는 1차적으로 모금된 후원금의 일부는 페루 의사협회에 기부함과 동시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Huaraz 시에 있는 Huaraz병원에 1,000개의 한국산 K94마스크, Huaraz 경찰청에 일반 마스크 3,000개, Ancash 주 Highway Patrol에 일반 마스

크 1,000개, Monterey 경찰서에 일반 마스크 500개, Tarica 경찰서에 일반 마스크 500개, Tarica 보건소 한국산 KF94 마스크 30개와 Tarica 시청에 일반 마스크 500개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원금이 마련되었다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이곳 페루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료용 3M사의 N95 마스크는 개당 \$25에서 \$30까지 이르러 터무니없는 가격을 부르기도 하고 그마저도 품질현상이라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사실을 저희 파송교회에 알리고 또 파송교회에서는 모두가 힘든 상황을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작은 금액이라도 재 페루한인회를 통한 페루의사협회를 도울 뿐 아니라 이곳 Huaraz병원과 경찰청에 필요한 소량의 마스크 및 의료장비라도 구매하여 기부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주에는 1차적으로 모금된 후원금의 일부는 페루 의사협회에 기부함과 동시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Huaraz 시에 있는 Huaraz병원에 1,000개의 한국산 K94마스크, Huaraz 경찰청에 일반 마스크 3,000개, Ancash 주 Highway Patrol에 일반 마스

(16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213)227-1400 /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차성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모임: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388-7101 /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수요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p>	<h3>남가주든든한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p> <p>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h3>남가주사랑의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4부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5:00(토)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p> <p>Tel: (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p>	<h3>머무는교회</h3> <p>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p> <p>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수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St.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 장소)</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모임: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영양)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 4부: 오후 1:30 수요모임: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p> <p>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일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854-4010 / betheh@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모임: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모임: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h3>엘피스사역원</h3> <p>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선교회(전)복음선교회 사역장: (월-토) 오전 10:30-오후 4:3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모임: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http://www.elf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6:00(토)</p> <p>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세운교회</h3> <p>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요모임: 오후 5:30(월-토) 성경대림회: 오후 7:20(토)</p> <p>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www.gci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h3>종은마을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Tel: (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모임: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Tel: (310)530-4040(CH), www.cornertoneyn.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03</p>	<h3>토렌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1018)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 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모임: 오후 8:00 (분당) 새벽기도: (월-토) 오전 5:30 (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rence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h3>핼(PIM)선교회, 교회</h3> <p>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인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p> <p>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p>	<h3>하늘소망교회</h3> <p>담임목사: 김익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수요모임: '여성들이 위하여' 새벽기도: 오전 9:30 새벽기도: 오후 7:00</p> <p>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p>

알기쉬운 IT 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CITIZEN 앱을 설치하세요

한국에는 정말 많은 CCTV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있어 차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24시간 녹화하니 강력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미국 땅에는 개인의 인권이라는 이유로 CCTV도 블랙박스도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나도 범인을 잘 잡을 수 없고 이런 방법 장치로 인한 사고 예방도 어렵습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 프랑스를 비롯한 여러 서방국가에서는 인권침해, 개

는 강력범죄를 알려주는 고마운 앱입니다. 아직 미국 전체에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 샌프란시스코, 볼티모어, LA 등 미국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앱은 911에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기 에 아주 정확합니다.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모두 잘 아시지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에서 CITIZEN을 입력하고 설치합니다. 자신의 id와 이메일을 입력하고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5G가 상용화됩니다. 5G가 보편화 되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이 사회안전망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우리가 가진 스마트폰을 통해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 범죄현장으로 인해 통제되는 길을 즉시

0.75마일 내 일어나는 강력범죄 알려줘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입력해서 설치사용

인의 권리 침해라는 내용의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를 보는 시각의 차이겠지만 저는 한국의 방법이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며칠 전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마쳤습니다. 2주 동안 문밖에 한발도 나가지 않는 완전한 격리생활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는 위치 추적앱이 설치되어 있어 만일 내가 움직이면 관계당국에서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스마트폰을 놓고 나가면 거기에는 걸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전화 체크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싫다고 생각하는 외국인인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방비를 해도 어디선가 스물스물 또 전염이 시작되는데 만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이마저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온 나라가 감염될 것입니다.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사건으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데모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데모를 틈타 방화 약탈이 일어났고 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에 대비하는 흥미로운 앱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CITIZEN이라는 앱입니다. 이 앱은 내가 위치한 장소에서 0.75마일 안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

알려주고 내 스마트폰의 내비게이션은 그곳을 피해가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우리 생명을 살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것이 스마트폰은 일면 편한 수준이 아닌 반드시 잘 사용해야 할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받는 알람이 어딘가에 확진자가 발행하면 그에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동경로까지 알 수 있어 혹 내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 수 있고 그렇다면 보건소에 연락하여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한국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는 수준이 아니라 꼭 필요한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도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에서는 더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갈 것입니다. 여기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http://pf.kakao.com/_FmSzx/49581334 (909)971-7720, sjyoon7231@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왕하4:32-37)

본문을 통해 신실한 성도가 하나님 은혜를 마음 깊이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수넵 여인은 엘리사가 부를 때까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참으로 차분한 믿음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엘리사가 아들을 데려가라고 할 때 아들에게 먼저가지 않고 엘리사에게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 다음에 아들을 안

고 나갔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을 크게 감동시킵니다. 먼저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하게 엘리사에게 엎드려 절한 후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 되고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삽니다.

화 술 가운데 해독이 없어지니라(왕하4:38-41)

본문은 엘리사가 선지생도들에게 2가지 기적을 나타내 보여줌으로써 인간의 지식과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4장에는 엘리사가 행한 5가지 기적이 나타나는데, 선지생도 남편 잃은 과부에게 행한 기적과 수넵 여인의 아들에게 행한 기적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들에서 나는 독이 든 참외를 먹고 죽을 뻔했는데

엘리사가 술에 가루를 넣어서 모든 독을 제거시켰습니다. 다섯 번째는 보리떡 20개와 채소한 자루로 1백명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요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어주십니다.

수 생도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왕하4:38-41)

본문은 길갈 땅에 흉년이 와서 큰 고통을 당하는 때 일어난 일입니다. 선지생도들이 공부하는 중에 엘리사가 큰 술에 국을 끓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들 외를 따다 끓였는데 그 들참외에 독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 아무도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다 술에 넣고 퍼다 주라고 했더니 독이 다 없어졌습니다. 정말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

니다. 본문의 교훈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도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19:2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죽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목 여호와와 말씀이 먹고 남으리라(왕하4:42-43)

본문은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의 사건입니다("구약의 오병이어 기적"). 엘리사와 선지 생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지만 여전히 흉년에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와서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 가져왔습니다. 순간 엘리사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선지생도들을 먹이기 위해 보내주셨구나! 이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고 남게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에게 주어 먹게 하라니까 "보리떡 20개로 어떻게 100명이 먹습니까?" 합니다. 오병이어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먹고 남으리라"고 하셨으니 주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다 먹고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왕하4:42-44)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한 신실한 성도의 헌신 때문에 모든 선지 생도들이 먹고도 남은 복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알 살리사에서 온 경건한 성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온 나라가 우상을 섬기던 시대라 신앙의 정절을 숨어서 지키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즉 첫 소산이 얻어지면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라고 출

34:26, 레23:9-14, 신26:3-10에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첫 소산을 가져다 드릴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첫 소산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드립니다. 한 신실한 성도는 신앙을 잃지 않았습다. 이 정성과 헌신이 선지생도들을 모두 먹고도 남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의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은 끊임 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토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왕하5:1-3)

본문은 "나야만 장군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아람에 아주 훌륭한 용사 중 하나인 용사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 공헌을 하고 왕과 모든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나아만 장군이 안타깝게도 문둥병이 걸려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계집 아기가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가정

부로 들어갔습니다. 이 계집아이는 나아만 장군이 우리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에게만 가면 나를 것임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반갑고 즐거운 모임... 아쉬워서 다시 모이고 싶다!

리더십저널, 코리 보우먼 목사가 전하는 포스트코로나, 소그룹 사역 재활성화 방안 소개

코로나 사태가 다소 진정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미뤄왔던 외출을 하느라 거리와 공공장소가 북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발표에 따라 각 급 학교도 오프라인 개학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점점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일들을 회복하고자 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

교회의 소그룹 사역 역시 재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오랜만에 다시 모일 교회의 소그룹, 재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점검해야 할지, 새들백교회 산클레멘테 캠퍼스의 코리 보우먼 목사(Corrie Bowman, Pastor of Adult Ministries, San

Clemente Campus)가 소그룹 리더들에게 보내는 "어떻게 모임을 촉진시킬 것인가?"(How do I Facilitate a Meeting?)를 보냈다.

코리 보우먼 목사는 우선 소그룹을 "촉진"시킨다는 용어를 매우 강조했다. 소그룹은 일방적인 가르침의 장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활성화"라는 의미를 가진 "촉진"이라는 용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했다. 많은 구성원이 활발히 참여해 자신의 삶을 나누고 변화를 누리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며 소그룹을 준비하도록 한 것이다.

1. 교제와 나눔을 위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라.

코리 보우먼 목사는 소그룹 모임의 공식적인 순서를 위한 시간 때문에 비공식적인 교제 시간을 축소시키지 말 것을 당부했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인" 교제의 시간은 결코 시간낭비가 아니며 오히려 매우 생산적인 시간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 소그룹은 소그룹 교제나 모임 양식 등 공식적인 것들이 갖춰져 있으며 그것은 풍성한 소그룹을 위해 교회가 정성들여 준비한 내용이므로 잘 지켜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에 앞서 "비공식적인" 교제의 시간을 잘 확보해야만 공식적인 시간이 훨씬 더 창조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중요한 첫 원칙으로, 편히 모여서 먹고 마시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코로나사태 이후 소그룹의 첫 모임은 더더욱 비공식적인 교제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랜만에 대면한 그룹 가족

들은 때로는 어색함에, 때로는 반가움에 더 많은 교제의 시간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첫 모임을 풍성한 교제의 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편한 환경을 조성하라

코리 보우먼 목사는 소그룹 재활성화를 위해 소그룹원들이 편히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라고 말한다. 우선 물리적인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다. 소그룹 리더는 편히 음료나 간식을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환경을 미

리 준비할 수 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식사교제는 어느 정도 시간차를 두고 진행하



리더는 교사 아닌 활성화 시키는 자... 가르치지 말아야 교제 나눔 시간 편한 환경 확보, 시작과 끝 시간 엄수

더라도, 오히려 개인의 위생을 신경 써 개별 포장한 음료나 간식을 리더가 준비한다면 모임을 열

거나 정성들여 준비했는지 소그룹원들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심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만들어 비공식적인 시간을 잘 활용하고, 교회가 제시한 좋은 커리

것도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을 것을 소그룹원들에게 미리 강조할 수 있다. 이로써 나눔에 소극적인 사람들도 자신의 의견이 평가받거나 묵살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눔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3.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라.

코리 보우먼 목사는 소그룹 리더가 스스로 자신은 소그룹을 활성화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교사가 아님을 기억하라고 말한다. 교사는 가르치는 전문가지만, 소그룹은 모든 사람이 의미 있는 나눔에 참여하는 장이다. 소그룹의 목적은 정보(information)가 아니라 변화(transformation)이다. 소그룹 리더는 가르치는 전문가가 아니라 활성화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4. 성령에 민감해지라.

코리 보우먼 목사는 리더의 준비를 강조하면서도 준비로만 할 수 없는 일들 역시 간과하지 말라고 권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리더가 좋은 환경을

쿨럼에 따라 공식적인 시간을 잘 보내는 중에도 성령께서는 언제나 다른 일들을 하고자 하실 수도 있다.

그날 자신과 교회가 준비한 것을 반드시 끝내려고 힘쓰지 않아도 된다. 때론 성령께서 앞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게 하실 수 있고, 평소 마음을 열지 않던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듣게 될 수도 있다. 소그룹 모임은 반드시 평소의 익숙한 루틴이 아니라 어도 괜찮다는 사실을 리더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

5. 시작과 끝 시간을 잘 지키라.

코리 보우먼 목사는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마지막 원칙으로, 소그룹의 예고된 시작시간과 마침 시간을 잘 지킬 것을 강조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특별한 상황의 일이다. 소그룹 리더는 임의로 시간을 변경하지 말고, 정확한 시간이 모임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을 알고자 한다. 자신이 언제 모임에 와야 하며 또 그 모임에서 언제쯤 떠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다시 그 모임에 오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오늘 모임에서 다 하지 못한 나눔을 다음 모임에 기대할 수 있도록 적절히 정리하는 것 역시 리더의 역량이다.

코로나사태 이후 오랜만의 모임이 반갑고 즐거우며, 심지어 아쉬워서 다시 모이고 싶은 모임이 되도록 적절한 시간에 제한해 운영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교편지

(14면에서 계속)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곳 페루 LIMA에도 한국분이 판매하고 있는 한국산 KF94마스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한국산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기부한 마스크의 숫자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이지만 그러나 이번 사역을 통하여 팬데믹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용기와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며 또 더 나아가 이번 사역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가가는 위로와 희망을 심어 줄 수 있었음을 체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곳 Huaraz

에서 8시간 떨어진 수도 LIMA에서 한국 마스크를 구매해 Huaraz병원 의료진들에게 기부하기 위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때마침 병원 의료진들은 개인보호장비 부족으로 인한(일주일 1개의 마스크와 1개의 방호복이 주어짐) 데모가 있었고 또 이를 취재하기 위한 여러 방송사들이 취재의 열기를 띄고 있을 때 저희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인보호장비를 기부하기 위해 우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의료진들의 박수와 환성이 쏟아졌으며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마스크를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소식은 여러 방송사를 통하여 생방송으로 전해지게 되었으며 이어서 여러 기자들의 동행아래 Huaraz경찰청에서의 마스크 기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Huaraz시의 여러 단체장으로부터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해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사역하고 있는 Huaraz라는 시는 약 12만 명이 사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곳 사정은 수도인 LIMA에서와 정반대에서도 거의 외면되어 이번 자가격리법이 시행된 후, 생필품 뿐 아니라 의료물품도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로인하여 오늘의 판데믹을 최전선에서 맞이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의료진들과 경찰병력들이 쓰러져가고 있는 것을

보며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개인에 대한 동정심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이 무너지면 이곳 모든 의료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편지를 쓰기 몇 시간 전, 이곳 Huaraz시가 속해있는 Ancash주 Highway Patrol Commander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저희 센터에서 수확한 옥수수과 채소 및 생필품을 가난한 분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법적격리로 인하여 움직일 수 없는 저희 센터팀과 함께 순찰차로 에스코트를 해주며 사역이 순조롭게 진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뿐 아니라 이번 LIMA에서 마스크를 구매해 다시 이곳

Huaraz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대원들을 동원하여 길을 열어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렇게 몇 달간 사역을 도왔던 젊은 순찰대원 중 한 분이 지난 3주 전 코로나에 감염되었고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지금은 Huaraz병원에 혼수상태로 누워있으니 함께 방문해줄 수 없느냐는 부탁이었습니다.

어제 함께 기쁜 얼굴로 함께 동역했던 한 젊은이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며 해줄 수 있는 것은 말쑥감치 떨어져 기도도 그를 축복하며 위로해주는 것과 그 젊은이에게 필요한 용량 방지용 Pad를 구입해 침대위에 놓아주는 것이 제가 해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요6:6-13)을 통하여 5천 명을 먹이셨을 때 큰 것을 필요

치 않으셨습니다. 오직 한 아이가 가져다 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작은 손길을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 성령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곳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를 통하여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곳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이고 또 주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이곳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과 이 백성들 사이에 더욱더 크게 확장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페루에서 김도경, 헤린 선교사 올림 gabrielkim1004@g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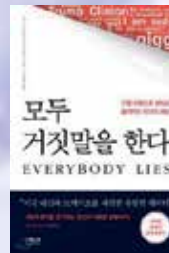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추천 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세스 스타빈스, 매도원, 데베트



침묵 앤도 슈사쿠, 흥성사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페아



독특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 리처드 말러, 리더스북

회원사

남북복음신문(삼광물,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나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www.koramdeo.com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duranno.us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lifebook.co.kr
말씀사 714-530-2211	bethelbook@hotmail.com
베델서적 949-854-9191	

복음사 562-865-4949
도르가 서점 714-636-7430